


2-4-2002

한국교회의 어린이 공동체훈련을 통한 어린이 신앙교육 연구: 루디아 어린이선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Duck Chun Kim 김덕천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김덕천, "한국교회의 어린이 공동체훈련을 통한 어린이 신앙교육 연구: 루디아 어린이선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DISCIPLING OF CHILDREN THROUGH BIBLE READING AND CHILDREN'S CAMP MINISTRY IN KORE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LYDIA CHILDREN'S MISSION SOCIETY

written by

DUCK CH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Jeong Kii Min

Seyoon Kim

February 4, 2002

**DISCIPLING OF CHILDREN THROUGH BIBLE
READING AND CHILDREN'S CAMP MINISTRY IN
KOREAN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LYDIA CHILDREN'S MISSION SOCIE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DUCK CHUN KIM

FEBRUARY 2002

한국 교회의 어린이 공동체 훈련을 통한
어린이 신앙 교육 연구
-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김 덕 천

2002년 1월

Abstract

Discipling of Children Through Bible Reading and Children's Camp Ministry in
Korean Church

- With Special Reference to Lydia Children's Mission Society -

Duck Chun Kim

Doctor of Ministry

200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attempt to examine the discipling of children through Bible reading and children's camp ministry in Korea.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Chapter 1-2), a study is being made on the children and family of the covenantal community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biblically, also nurturing of children and faith education ecclesiologically, and child evangelism and nurturing theologically.

In the second part(Chapter 3-4), an analysis is being made on the children and family ministry of Scripture Union working in England and New Zealand as a model. Also an analysis and its evaluation are rendered on the reality of the church education of Korea and 6 children's mission organizations in Korea.

In the third part(Chapter 5-6), an analysis and examination is being made on the Lydia Children's Mission Society in order to draw out the general principles of children's ministry, and to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discipling of children would be achieved by the nurturing of parental discipline to make their children reading the Bible regularly, systematically, thoughtfully, and relevantly. Also this nurturing system can be reinforced by weekly home Bible study, and children's holiday camp. Thus building up the strong family based on the solid foundation of Bible reading and camp ministry would be contributed to the building up the faith community of biblically healthy church and morally wholesome society. Thus

the seasons of Christ are coming on the whole earth so fully blossomed!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Jeong Kii Min, Ph.D.

Seyoon Kim, Ph.D.

감사의 글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군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본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세운 박사님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제안서 작성과 목차까지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민종기 박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조언해 주신 권문상 박사님께도 아울러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종의 삶을 아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쉬고 계시는 아버님 김진홍 목사님과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님 김향오 권사님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루디아 선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아끼지 않는 누님 김덕희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완성할 때까지 제 곁에서 조용하게 내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권제순과 멀리 포항에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큰아들 진철이와 자료 검색과 정리를 도와준 작은아들 현철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완성하도록 채찍질을 아끼지 않고 힘 없이 도전해 주셨던 박사원 부원장 김태석 목사님과 본 논문의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종훈 목사님과 함영주 강도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조언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호주 성서유니온 이창엽 목사님,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 양승현 목사님과 총신 대학교 은퇴교수이신 홍치모 교수님, 그리고 전갑수 님과 기도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2월

김 덕 천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6
제 1 절 성경적 고찰	6
1. 하나님 형상의 공동체적 의미	6
2.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7
3.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이상	9
4. 언약 공동체의 쇠퇴와 새 시대의 도래	12
5. 교회의 공동체적 완성	12
가. 가정 공동체	12
나. 언약 공동체	12
다. 국가 공동체	13
6. 신약에서의 어린이 양육	14
7. 사회 속의 공동체	15
제 2 절 신학적 고찰	20
1.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	20
가.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20
나. 예수와 어린이	24
다. 어린이와 복음전도	31
라. 어린이와 가족	37

2. 교회와 신약적 가족 개념	42
가. 가정 모임으로서의 교회	42
나. 그리스도인의 모임	43
다.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45
제 3 장 성서 유니온(Scripture Union)의 어린이 전도와 공동체 훈련	4
제 1 절 성서 유니온의 역사	43
1. 배아기(Children's Special Service Mission)	84
가. 먼저 어린이에게 복음을	49
나. 전도 문서의 중요성	51
다. 성경읽기 사역의 기초	52
라. 새로운 조직으로	53
2. 성장기(Children's Scripture Union)	55
3. 원숙기: 최초의 성경묵상 교재	54
4. 세계 속으로, 미래를 향하여	55
가. 어른에게도 유익한 성경읽기	55
나. 성경읽기 사역의 다양화	56
다. 대학생들의 참여	57
라. 학교 사역	57
마. 첫 번째 캠프	58
바. 멀리 떨어진 촌락까지	58
제 2 절 영국 성서 유니온과 어린이 사역	59
1. 영국 성서 유니온의 목적	59
2. 영국 성서 유니온의 신조	59
3. 영국 성서 유니온의 활동	59
4. 영국 성서 유니온의 사역 원칙	60
가. 전도와 가르침	60
나. 성경 사역	61

다. 교회	61
라. 평등과 일치	62
마. 자원봉사자와 감사	62
바. 성경적 표준	62
5. 영국 성서 유니온의 사역	63
가. 전도 사역자	63
나. 휴가 전도 사역	64
다. 학교 사역	64
라. 휴가 사역	66
마. 출판 사역	67
바. 교회 관계(Church Relations) 사역	68
사. 국제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사역	68
제 3 절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과 어린이 사역	70
1.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목적	70
2.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신조	70
3.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활동	70
4.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사역원칙	71
5.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사역	71
가. 성경 사역	71
나. 캠프 사역	72
다. 학교 사역	73
라. 어린이와 가족 사역	74
마. Crusader Lodge 운영	76
바. 출판과 자료 보급 사역	76
제 4 장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황	77
제 1 절 한국교회와 주일학교	77
1. 여명기(1884-1919)	87

2. 개화와 암흑기(1912-1945)	97
3. 재건과 도약기(1945-현재)	118
제 2 절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문제점	82
1. 주일학교의 재정의	82
2.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100, 그 반성과 과제	86
3. 한국교회와 어린이 전도	88
제 5 장 루디아 선교회 공동체 훈련의 배경	95
제 1 절 루디아 선교회의 역사	95
1. 그림 성경 사역	95
2. 어린이 가정 성경 모임: 징검다리	97
3. 어머니 기도회, 기독교 교사 모임	98
4. 어린이 캠프 사역	99
5. 낙도 전도 사역	100
6. 성경 읽기 사역(말씀과 함께)	103
7. 주일학교 교사 대학	103
8. 출판 사역	103
제 2 절 루디아 선교회의 공동체 훈련의 원리	104
1. 공동체 훈련의 원리	104
2. 프로그램의 철학	106
제 3 절 어린이 공동체 훈련을 위한 총체적 사역 전략	109
1. 그림 성경 전도 사역	110
2.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	110
3. 어린이 캠프 사역	112
4. 낙도 전도	115
5. 성경 읽기 사역	115
6. 주일학교 교사 대학	117
7. 출판 사역	117

제 6 장 루디아 선교회 공동체 훈련	118
참고문헌	123
Vita	12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남긴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주의 재림을 앞둔 교회의 필연적 과업이다.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는 훈련된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배출해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별히 교회는 어린이 전도와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9:14)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린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경읽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며 또한 방학 캠프와 주말 성경 공부와 같은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미래의 교회 일꾼으로 양성하고 바람직한 지역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대위임령을 이루어 가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와 경제 구조의 다원화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어린이 전도와 신앙 교육에 큰 위협을 안겨다 주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사회 문제로서 도시화와 공업화, 그리고 효율의 극대화¹⁾를 들 수 있다. 현대 도시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함께 점차적으로 인구가

1) 현대 사회는 도시화 사회, 정보화 사회, 기계화사회, 관리사회, 계급사회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각각의 개념들은 현대 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지만 현대사회를 ‘대중사회’로 규정하고 대중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영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수용한다....대중사회는 가족 형태를 핵가족화시키고,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여가의 증대 등으로 인한 오락의 대중화를 촉진시켜 왔다. 오락의 대중화는 대중매체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

집중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급속한 도시화(urbanization)의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됨²⁾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모두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한편 이 변화의 과정을 추구하는 덕목이 '효율의 극대화'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를 과정이라고 한다면, 효율의 극대화는 그 결과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두 요소가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과정은 없어지고 효율의 극대화라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 그 결과 가족 공동체와 지역 사회 공동체의 해체와 붕괴라는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³⁾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서 집단과 물인간화(沒人間化)를 들 수 있다. 물인간화란 인간이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몰자아 또는 몰개인화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용어에서 접두어로 사용한 '몰'이라는 말은

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각종 대중매체는 대량소비를 자극하며, 획일적이고 창조성이 적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질보다 양 우선'의 물량주의를 강화시켜 왔다. 대중 매체는 의사소통의 양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일방적 전달로 대중을 '심리적 마취상태'로 이끄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숙재 외, 가정 경영 (서울: 학지사, 1996), 12-13.

2) 한국의 도시 인구는 1925년 최초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도시 인구는 85만 명, 1944년에는 341만 명이였다. 그후 해방과 일본의 철수 등의 변화를 겪고, 해방 이후 해외 동포들의 귀환 등으로 1946년에는 남한의 도시 인구는 238만 명, 6.25 이후 이북 동포들의 귀환등으로 1960년에는 699만 명, 1985년에는 2,718만 명으로 늘어나서 십 년마다 2배로 늘어났다. 도시의 수적인 측면에서도 남한의 경우 1946년에는 14개, 1960년에는 27개, 1990년 현재 67개가 있으며, 180개 읍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는 237개에 이른다. <http://biho.ac.kr/~chodh>.

3) 조정문은 '전통적인 핵가족의 장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핵가족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생활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핵가족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핵가족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다양한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수용한 수정된 핵가족-맞벌이부부, 주말부부, 평등가족, 다른 핵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가족-도 등장하게 된다. 물론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가족의 변화로 보지 않고 가족의 해체 또는 약화로 보는 관점도 있다. 즉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핵가족도 그 전형적인 모습을 상실함에 따라 가족제도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전통적 핵가족이 붕괴하면서 가족적 유대자체가 사라지고 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특히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 내의 부양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도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한국 사회의 가족 생활의 변화'는 첫째, 권위주의적 부자관계에서 민주적 부자관계로, 둘째, 부자관계 중심에서 부자관계와 부부관계가 다같이 중요시되는 가족으로, 셋째, 확대가족에서 수정된 확대가족으로, 넷째, 부계중심적 친족관계에서 양계(兩系)적 친족관계로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조정문, 장상희,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2001), 409-411.

외적인 힘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주체가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전통적 교회의 회원이 되면 회중, 곧 집단에 소속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교회의 회중은 다수이며, 집합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개인은 전통적인 교회의 제도와 조직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생활에서 몰인간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개인은 집단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결국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그 의미가 희석되어감을 부인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서 바람직한 가정(strong family)과 정체성(identity)의 확립의 요청이다.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오늘 한국인은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⁴⁾ 일반적으로 가족 집단은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건강한 가정(strong family)과 그렇지 못한 가정(weak family)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직 돈 버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녀는 공부만 잘 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고, 자녀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나 역할은 소홀하게 하여도 나무라지 않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우리는 핵가족화를 쟁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⁵⁾ 그러나 대가족제도이든 핵가족제도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핵가족화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4)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현대 사회의 특징적 요소'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의 결과 공업화와 도시화를 거의 동시에 진행시켰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분업의 심화이다. 분업의 심화는 사회의 직업 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농업 인구의 다수가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화를 촉진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는 사람들의 가족 생활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즉, 핵가족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즉, 확대 가족에서 강조되던 가족주의나 공동체 지향적인 가치관이 점차 소멸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는 핵가족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보다 중요시되므로 사회 구조가 유연성을 띠는 대신,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은 그만큼 쇠퇴되었다. 문수재 외,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수학사, 1993), 124-128.

5) 사회 변동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핵가족 형태가 전체의 약 80퍼센트이고 한 가족의 구성인은 3.8명이라는 보고가 있다(통계청,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이것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분화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은 생활하기에 단순하고 편리한 면이 있는 반면, 고립되고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임정빈 외, 가정 관리학 (서울: 학지사, 1994), 17.

가족 구성원의 사회성의 결여가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성이 결여되면서, 필연적으로 자녀 세대는 TV 시청과 전자 오락에 탐닉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가 결여되게 된다.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속도는 급기야 가족 해체와 붕괴라는 현상을 가져오고 말았다.

네 번째는 개인의 문제로서 성과 속, 예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성과 속으로 구분할 때, 이중성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적 이분법(Christian dichotomy)이라고도 말한다. 성과 속을 나눔으로 오늘 한국 교회는 개인 생활의 일관성(integration and consistency)을 상실하고 사회를 개혁할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심각한 현실적 문제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계급의식과 수직적 구조 개념이다. 그들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 구조로 이해하고,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고 신앙이 성숙된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신앙으로 성장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을 통한 어린이 신앙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어린이들의 삶의 장을 찾아가야 한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희망과 고민을 나누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어린이들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독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재능과 소유를 함께 나누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다른 지체를 돌보는 생활이 몸에 익게 해야 한다.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은 어린이들은 성인이 된 다음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항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받았던 '충성된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의 어린이 전도와 훈련은 교회의 충성된 일꾼과 바람직한 시민을 반복적으로 양성하여 내야 한다. 이 원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실하게, 그

리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그것과 더불어 공동체를 통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공동체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자는 어린이 공동체 훈련을 통한 신앙교육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신앙 공동체 훈련에 대한 개념과 그 실재를 중심으로 본 연구가 전개되어 갈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2장에서는 어린이 신앙교육에 대한 성경적, 교회사적,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정립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어린이 신앙 공동체 훈련의 실재로서 성서 유니온(Scripture Union)의 훈련 과정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성서 유니온의 출발 배경, 어린이 사역의 목표, 그리고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서의 성서 유니온의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현 주소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어린이 전도의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5장에서는 한국에서 있었던 어린이 공동체 훈련의 핵심인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의 훈련 목표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린이 공동체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 실제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6장에서는 어린이 공동체 훈련에 대하여 루디아 선교회의 입장에서 본 미래적 제안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어린이 공동체 훈련을 통한 신앙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루디아 선교회의 활동 내용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실행했던 활동에만 한계를 둔다.

제 2 장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제 1 절 성경적 고찰

1. 하나님 형상의 공동체적 의미

성경의 핵심 사상인 공동체 개념은 이스라엘이 국가 공동체로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전,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창 1:26-27).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대 자연계, 둘째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 셋째는 인간 개개인의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

그 중에서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창세기 2장 18-25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이며, 동시에 ‘나와 너’(I and thou)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인간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것”⁷⁾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18-25절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제공한다.

첫째는 사회성 혹은 공동체성을 제공한다. 창세기 2장 18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6)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9-10; 송인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의미를 첫째, 인간대 자연계: 피조계를 다스림(창 1:26-28), 둘째, 인간과 인간 상호간: 사회성 혹은 공동체성(창 2:18-24), 셋째, 인간 개개인의 수준: 타락과 더불어 상실한 영적 특질. 타락 이후에도 보존되어 있으며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 짓는 특질들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한다.

7) Ibid., 10.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helpmate, Jerusalem Bible)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인간은 혼자서만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호 보완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서부터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출발한다. 이것을 사회성 혹은 공동체성이라고 한다.

둘째는 친밀성이다. 창세기 2장 23절의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는 말씀에 ‘뼈’나 ‘살’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적 표현이다. 결국 하나의 실존적 개인을 가리킨다. 즉 ‘나와 너’가 인간의 본질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나는 너의 전부요 너는 나의 전부라는 것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에 대해(또는 그룹 사이에) ‘나는 너의 전부요 너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친밀성’의 관계이다.

셋째는 합일성이다. 창세기 2장 24절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심리적, 사회적) 유대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동체적 통합성과 일체감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됨(oneness)을 확인하고 축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을 일컬어 합일성(unity)이라고 한다.

인간은 그 “상호 관계 속에서 합일성, 친밀성(intimacy),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는 특징을 보유”⁸⁾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결과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사회성 및 공동체성은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뿌리박은 것”⁹⁾이다.

2.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에덴 동산에 건설된 최초의 공동체-그것을 가정이라고 하든 사회라고 하든-는 그 구성원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

8) Ibid., 11.

9) Ibid., 13.

다.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이상, 곧 구성원 사이의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을 상실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역시 단절되었다. 아담은 하와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했다(창 3:11-12). 이는 상대를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본보기이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고 선언하심으로써, ‘부부와 남녀 관계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도 소유욕과 다스림이 등장하게 되었음’¹⁰⁾을 암시한다. 곧 이어 다음 세대에 이르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창 4:8), 부정직과 속임수(창 4:9) 등이 나타났고, 몇 대가 지나가자 더 극악한 살인(창 4:23), 일부다처(창 4:23), 자기중심적 편의주의(창 4:24) 등의 타락한 인간의 양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현상은 폭력과 살인, 억압과 착취였다. 동시에 인간의 사회(혹은 공동체)는 삼위 되신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영적 연합이 깨어짐으로 죄의 지배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자원의 빈곤과 결핍, 즉 죽음의 가속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사회, 신앙 공동체-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인간 사회-로부터 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친히 가나안 땅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식하여 상실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고자 하셨다. 이 계획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원래적 이상, 곧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을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러한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비전(히 11:10)을 심어 주셨으며(창 12:2; 13:16-17; 15:5, 13-14; 17:1-7; 18:18; 22:17), 이 비전은 이삭과(창 26:4, 24) 야곱(창 28:3, 13-14; 35:11)을 거쳐 열두 자손으로 퍼져나가면서 구체화되었다.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열 두 지파로 구성된 야곱의 후손은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으로 지칭했고, 모세 역시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대화하거나 기도할 때에 ‘당신의 백성’ 혹은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하셨고, 그들을 보배로

10) Ibid., 17.

운 소유로 여겨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 즉 일반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즉 신앙 공동체를 자기의 친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사 43:1-7)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반영¹¹⁾케 하고자 함이었다.

3.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는 공동체적 이상은 모세를 통하여 수여하신 율법에 반영되어 있다. 이 율법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생명의 축복과 죽음의 저주가 따르는 언약 조항이었다.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남북 왕조 시대, 바벨론 유수와 귀환에 이르도록 펼쳐지는 역사의 파노라마 가운데 숭한 사건과 교훈은 언약 조항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부각된 것이다.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와 질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공동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그 안에는 공동체적 이상으로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데-에 대한 강조¹²⁾로 점철되어 있다. 공동체로서의 이상, 곧 상실한 공동체의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의 회복이라는 문제 가운데 합일성의 산출이 가장 시급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심의 종교 생활이 언약 공동체의 합일성 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아론의 제사장직과 성막의 건립, 절기의 제정은 종교 생활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 차례-무교절 혹은 유월절, 맥추절(혹은 칠칠절), 수장절(혹은 초막절)-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나가 하나님을 뵈어야 했다(출 23:14-17; 34:23-24; 신 16:16).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수립이나 갱신을 위하여 거족적 회집을 가짐으로 누리기도 했다(출 24:3-8; 신 29:10-13; 수 24:1-28; 왕하 23:1-3; 느 9:1-38).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을 좇아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앞에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자 회집하였고(수 8:30-35)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결단과 관련하여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며(삼상 7:3-12) 히스기야 왕의 재위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켰다(대하 30:1-13). 이러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¹³⁾

11) Ibid., 20.

12) Ibid., 21.

13) 그 이외에도 왕의 웅립에 참여하고자 백성들이 회동함(삼상 10:17-24; 11:14-12:18; 삼하

4.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쇠퇴와 새 시대의 도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공동체적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뜻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 실패와 좌절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쇠퇴해 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면모를 매섭게 책망하였다.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합일성이 파괴된 사건은 남북 왕조의 분열이었다. 솔로몬의 혹정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왕상 12:1-14)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남국 유다는 르호보암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왕상 11:26-40; 12:15-24). 공동체의 합일성 파괴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와 신앙 생활에서도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을 계속적으로 방문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내에 임의로 제사 제도를 설립하였기 때문이었다(왕상 12:25-33; 13:33).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으로 통일하여 합일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한 친밀성과 상보성마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 '형제'라는 호칭은 있었으나 상호간 신뢰는 사라져 버리고 그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¹⁴⁾ 상보성이 사라져버린 언약 공동체 안에는 소득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빈익빈 부익부와 약육강식의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의 타락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이상의 회복을 완전히 실패한 것은 선지자들의 권면, 경고, 책망에 잘 나타나 있다.¹⁵⁾ 이러한 불의와 압

2:4; 5:1-3; 대상 11:1-3; 대상 12:38-40), 하나님의 궤를 옮겼을 때(대상 13:1-8),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 때에 함께 참여함(왕상 8:62-66; 대하 7:4-10)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닌 연합의식의 한 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14)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속임과 비방(렘 9:4-5), 형제에게 해를 끼침(미 7:2), 형제를 억탈함(겔 18:18), 궤사를 행함(말 2:10)이 예사로운 일이었다.

15) 고아 및 과부에 대한 부당한 재판(사 1:17; 렘 5:28), 압제(렘 7:6; 속 7:10; 말 3:5; 참조. 왕하 4:1), 나그네와 이방인을 압제하고(렘 7:6; 속 7:10), 학대하고(겔 22:29), 억울하게 했으며(말 3:5), 품꾼, 역군을 압제하고(사 58:3), 품삯에 대해 억울하게 했다(말 3:5), 학대받는 자를 돕지 않았고(사 1:17),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지 않았으며(사 58:6),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고, 벗은 자를 보아도 입히지 않았다(사 58:7; 겔 18:7),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기는커녕(사 58:7; 겔 16:49), 학대(겔 22:29; 암 4:1; 속 7:10; 참조. 암 2:6,7; 5:11; 8:4, 6)를 일삼았고, 변리를 취하고(겔 18:8, 13), 전당물을 억류하는가 하면(겔 18:7,12; 암 2:8), 부

제, 학대 행위가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¹⁶⁾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언약 공동체의 이상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했던 근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편에서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으며, 동시에 공동체의 이상 또한 거부한 것이다. 언약 조항의 불순종은 언약 파기와 우상 숭배가 서로 맞물려 있다(왕하 17:17-20, 34-3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공동체의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실패했지만, 오히려 실패를 계기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선택한 백성의 이방 땅에 포로 됨과 유배 생활이라는 어둠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다. 온 열방의 만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이 시작될 것이었다(시 47:9; 사 19:25; 스 2:1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참조, 창 18:18; 22:18; 26:4)고 하셨던 말씀에 이미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일 하나님의 뜻이 함의되어 있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 공동체의 이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실현했더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 세계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중재 역할(출 19:6)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반역의 길을 걷고 말았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땅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기로 하셨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구속사의 여명을 내다보며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

당한 재판을 행했다(렘 5:28; 암 5:12).

16) 예를 들자면,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이 일의 은폐를 위해 우리아를 모살했는가 하면(삼하 11:2-26),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한 학정을 고집했으며(왕상 12:12-14), 아합은 부인 이세벨의 사주를 따라 나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탈취했고(왕상 21:1-16; 참고 미 2:1-2), 시드기야는 율법의 규정대로 히브리 종들을 방면하기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도 다시 파기하였다(렘 34:8-16). 선지서에서는, 불의한 지도자 계층을 왕(렘 22:2-3), 방백(사 1:23; 3:14; 렘 34:15-16, 19, 21; 겔 22:6), 관원과 유사(사 1:10, 15-17), 장로(사 3:14), 재판관(사 10:1)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고아와 과부에게 부당한 재판(사 1:23), 약탈이나 토착(사 10:2), 압박 및 학대(렘 22:3), 해를 가했고(겔 22:7), 나그네와 이방인을 압박하고(렘 22:3) 학대하는 일(렘 22:3; 겔 22:7), 가난하고 궁핍하며 빈핍한 자에 대한 착취(사 3:14-15), 불공평한 판결(사 10:2; 렘 22:16-17) 등이다. 그외에도 가련한 자에 대한 권리 박탈(사 10:2),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게 방치하는 일(렘 21:12; 22:3) 품꾼에게 품삯 지불을 안하는 일(렘 22:13) 등이 있었다.

달”¹⁷⁾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열방, 만방,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될 구속사의 새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이다.

5. 교회의 공동체적 완성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지만 인간의 죄성, 세상의 영향, 사단의 활동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상의 완전한 성취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 형상의 공동체적 내용인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실현된 실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상의 실현은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인간의 사회적 영역, 다시 말해서 일반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실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개입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성취될 때, 비로소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는 타락 이전의 아담 공동체가 가정, 교회, 사회의 각 면을 통합했던 것처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의 통전적 회복”¹⁸⁾을 의미한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언약 공동체이며, 그 모습은 가정, 교회, 사회라는 각도에서 전망할 수 있다.

가. 가정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적 완성은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눅 20:36; 롬 8:14-17; 갈 4:6-7; 히 12:9),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의 말형 노릇을 해 주신다(롬 8:29-30; 히 2:11-12, 17; 7:24-25).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영구히 형제와 자매가 되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 12:49-50; 막 3:34-35).

나. 언약 공동체

17) Ibid., 38.

18) Ibid., 61.

완성될 천국은 하나님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언약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천국의 완성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요한의 글에서 그 모습이 예시되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계 21:2-3). 요한의 묘사를 따르게 되면, 완성된 새 언약 공동체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완성될 천국에서 교회(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는 언약 공식으로 표현되는 신앙적 이상-곧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이 완전하게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는 실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계 21:3) 때문이며,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기’(계 21:22)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단계인 천상의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참조. 엡 5:25, 30, 32; 계 19:7-8; 21:2-7,9-10).¹⁹⁾

다. 국가 공동체

완성될 천국은 국가 공동체라는 각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요한은 이를 두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계 11:15),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계 21:24)고 진술한다. 천국,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을 세 가지 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사회 공동체이다(계 11:15; 12:5; 15:4; 참조. 시 2:7-8; 단 7:13-14; 눅 1:31-33). 둘째, 천국의 시민은 이 세상 만민으로 구성될 것이다(계 15:4; 21:24,26; 22:2; 참조. 사 60:3). 셋째, 이 세상에서의 문화적 유산은 정화되어 영원히 천국의 사

19) Ibid., 63.

회 공동체에 보존될 것이다(계 21:24, 26; 참조. 사 60:5-9, 11; 66:12, 20).²⁰⁾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천국은 가족(가정 공동체)이요, 교회(새 언약 공동체)요, 사회(국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형상의 공동체적 이상 곧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을 영영토록 반영”할 것이다.²¹⁾

6. 신약에서의 어린이 양육

신약 성경에서 아동기의 이론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어휘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nepios’는 영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성인과 비교하여 어린이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강조한다. ‘paidion’은 7세까지 어린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pais’는 7세에서부터 14세에 이르는 어린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며, 어린아이와 사춘기 청소년을 구분하는 말이다. ‘teknon’은 부모나 가족 관계 속에서 사용된다. 신약 성경에서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 사용되며, 따라서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었다.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호칭으로 사용했다. 이는 노사도에게 이들의 모습이 아주 어린아이로 비추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말은 모두 상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복음서와 서신서의 용례를 주의 깊게 연구하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어린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어린이를 단위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에서 삶을 나눴다. 그러나 어린이라는 말에 함의된 또 다른 의미는 신앙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이 말을 사용했으며, 어린이와 같음은 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삶의 체험 속으로 인도한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말은 ‘집’이라는 의미의 ‘oikos’와 거기서 파생된 말이다. ‘oikos’는 때로는 부부와 자녀, 그리고 그 집에 동거하는 종들과 친척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딤후 3:5, 12).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20) Ibid., 63.

21) Ibid., 64.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눅 1:33; 행 7:42),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딤후 3:15; 벧전 4:17; 비교. 엡 2:19 'oikeios' 한글 개역에서는 '권속'으로 번역되었음).

신약 성경에서 단 3회만 언급된 'patria'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글 개역에서는 '(다윗의) 집'(눅 2:4), 족속'(행 3:25; 엡 3:15)이라고 번역되었다. 이 말은 확대 가족 집단의 기원이 되는 조상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은 가족을 사회(일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본다. 가족은 자녀의 신앙 훈련에서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많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족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확대된 의미의 혈연관계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개념을 반영하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초대 교회는 가족과 식구 형태의 인격적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상적인 틀인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 영적으로 출생한 신생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입되는 관계에 기초하여 교회는 자기 자신을 가족으로 보았다. 신약 성경은 신자간의 관계를 친밀성과 상보성에 근거하여 서로 돌보며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보았으며, 가족의 틀 속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각 사람은 몸을 이루는 합일성(하나 됨)이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7. 사회 속의 공동체

초대 교회도 오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적의로 가득 찬 사회에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새롭게 탄생한 언약 공동체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2-47).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신앙이 유대 본토를 넘어 로마 제국 전체에 파급되었으나,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삶의 미덕은 일반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운동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가정 규모의 소그룹으로 모임과 교제를 나누었던 초대 교회는 적어도 2세기 동안 작은 가정 규모의 그룹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교회였다. 대규모 집회를 가질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였던 가정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행 16:5)고 기술하고 있다. 초대 교회는 작은 가정 규모의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언약 공동체적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본질적으로 ‘평신도 운동’이었다. 바울은 언약 공동체 전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강조했고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²²⁾

동일한 신앙, 가치관, 그리고 헌신을 공유하는 구약 공동체의 이상, 즉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이 실현되었지만 그 형태는 매우 다르다. 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일반 공동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교회)라는 식민지가 생긴 것과 같다. 각 식민지는 함께 모여 한 가족처럼 삶을 공유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모세를 통하여 수여된 율법의 정신과 이상은 옛 언약 공동체가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보다 더 구체화되고, 단순화된 율법의 핵심을 붙잡을 수 있었다(비교. 마 22:36-40; 롬 13:9-10). 율법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율법 자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 원인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죄성’ 곧, ‘육신의 연약함’에 있다(롬 8:3). 그러므로 공동체적 이상의 실현은 예레미야의 예언(렘 31:33)과 같이 오직 내면의 변화만이 가능케 할 수 있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새 언약의 시간 속으로 침노하였으나(마 26:27-28; 고후 3:6-11; 히 8:7-10:18), 옛 언약의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시려는 기준은 변함이 없었다. 새 언약 공동체의 삶은 내적 변화와 함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위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아울러 아래로 사람과 사람간의 수평적 관계가 그것이다. 하나님

22) Lawrence O. Richards, 어린이 사역, 38.

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출발한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가 직인들을 받아들여 주셨듯이 ‘서로를 자유롭게 받아들여야만’(15:7) 합일의 정신을 이룰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롬 14, 15장) 공동체 구성원(식구)를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되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것처럼 고린도에 설립된 가정 교회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 논쟁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 영적 성장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으로(고전 3:6) 새 언약 공동체 안에는 동등함만 존재해야 한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저 지도자보다 이 지도자가 더 높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적 합일을 더 공고하게 이룩하기 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 14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영적 은사의 핵심은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소유한 다양한 은사 가운데 사랑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사랑에 대한 바울의 명쾌한 정의(고전 13:13)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은 구체적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눔’의 목적은 ‘평균케 하려 함’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현재)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미래)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고후 8:13-14)이라는 말과 같이 소유의 균등을 가져오는 공동체적 경제 원리이다. 나눔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물질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구약의 공동체적 이상은 새 언약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²³⁾

초대 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은 초대교회의 양육 방법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표현되는 인간에 대한 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초대 교회가 가정에서 취했던 삶의 방식을 밝히고 있다(2:7-12).

23) Ibid., 42.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였음을 1장에서 분명히 언급한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관계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가족’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목회는 ‘유순한 자’의 역할이었다. 이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 즉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이를 ‘돌봄’과 같다(7절). 사랑은 바울 자신(생명)뿐 아니라 복음을 ‘나눔’으로 표현되었다. 그 단순한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 때문이며, 이는 ‘친밀성’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돌봄’과 ‘나눔’으로 표현되는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비교. 7-8절, 3, 5절).²⁴⁾

바울은 이 ‘가족’ 이미지를 확대하여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을 묘사한다.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10-11절).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아버지처럼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촉구한다(12절). 바울의 묘사를 통해서 ‘가족’이란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로 엮어진 동지라고 연상하게 된다. 가족을 부드럽고 생기 있게 느끼며,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은 공동체의 세 가지 이상 가운데 하나, 즉 ‘친밀성’의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바울의 언급에서 각 개인에 대한 깊은 배려(돌봄)으로 요약된 것, 즉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인격체로 대하려는 관심,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각 자녀의 인격과 요구에 적합한 인도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 국가(일반 공동체)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함과 관계적인 삶이 풍성하게 직조된 새로운 공동체였다. 신약 교회가 자기의 모습을 ‘확대가족’(extended family)으로 보고, 서로 서로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는 참 이유가 여기 있다(마 12:46-50; 막 3:31-35; 눅 8:19-21; 참조. 엡 3:14-19).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려던 모세의 이상은 신약 교회(‘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한편 옛 언약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의 참여가 모세가 꿈꾸었던 공동체 양육체계의 기본적인 틀이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생활에 어린이들이 참여했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새로운 공동체가 모인 배경은 가정이었다. 어린이들이 식탁 교제 시간에

24) Ibid., 44.

서도 제외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또 공동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확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다는 증거이다.²⁵⁾

클레멘트가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에 참여하게 하자”(To the Corinthians, 21:7)라고 기록했을 때 어린이들도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²⁶⁾

신약 성경은 가정 안에서 자녀 훈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신명기 6장과 11장에 언급된 방식과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언급뿐이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초대 교회 구성원들이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에 참여시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계했다고 믿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녀들도 자신들처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어른 구성원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일반 공동체)에서 삶의 중심지인 교회(신앙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결국 모세의 이상은 언약 백성으로 구성된 국가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것이었지만, 신약 교회는 옛 언약 공동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규모가 작은 공동체, 즉 ‘확대 가족’으로서 신앙 공동체였다. 그 구성원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룩하게 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적의를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의 사회, 세계 속에 그 뿌리를 내렸다. 어린이들도 역시 사회, 세계(일반 공동체)와 교회(신앙 공동체)의 이중적 구성원으로 살았음이 분명하다. 교회 공동체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와 교육 과정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그 대신 세속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아야 했다. 어린이들은 이교도 신전에 안치되어 있는 남녀 제신들의 위협과 행

25) Ibid., 44.

26) Ibid., 45.

적으로 가득 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초대 교회는 어린이들을 주변 세상에서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이교도들의 사회, 세계(일반 공동체)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비교해본 후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자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두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부모의 격려와 교훈으로 양육되고, 다른 한편으로 관계로 형성된 '확대 가족'인 신앙 공동체의 모든 어린이들은 성인 구성원들의 삶에 참여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인도되고 양육되었다.²⁷⁾

이상은 어린이 교육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다. 성경은 줄곧 공동체의 개념과 그 안에서의 양육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육의 원리가 바로 공동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적 성숙과 연단이 이루어졌으며 그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장을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훈련은 가정에서의 양육의 원리와 서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린이 양육에 대한 공동체 훈련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신학적 고찰

1.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

가.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어린이에 대한 예수의 말씀(sayings)과 행동(actions)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중심 주제를 전후하여 잘 직조된 직물과 같다. 예수께서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어린이는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²⁸⁾ 예수의 동시대인들은 '나라'를 왕이 취하는 행동, 즉 '통치'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하나

27) Ibid., 46.

28) W. A. Strange, Children in the Early Church: Children in the Ancient World, the New Testament and the Early Church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6), 46.

님의 나라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물론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를 이미 통치하신다고 보았다(사 6:5; 시 29:10; 99:1-4). 그러나 예수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속목적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의 개입'이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침입하여 죄와 고난의 현실체계를 무너뜨리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의 다스림을 확립하는 결정적 조치를 이미 취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충만하게 도래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미래의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며 활동 중이었다. 예수의 치유와 축사(逐邪)는 그 나라의 현존을 시위하는 것이었다(마 12:28).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그려주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야 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청했다. 예수의 동시대인들은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율법교사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고 존경받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해와 기대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처음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처음이 되어야 하리라"(막 19:30; 막 10:31; 눅 13:30; 비교. 마 20:16).²⁹⁾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서기관들이나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라는 말씀에서 입증된 것처럼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구성원들이었다. 예수의 사역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소외 계층'(the most marginal)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의 직업과 신분 때문에 천민(outcast)으로 간주되었다. 문둥병자, 혹은 귀신 들린 자들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밀려났다(막

29) Ibid., 47.

1:40-5; 5:1-20).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생활을 제공하였다. 용서, 치유, 구출은 하나님 나라에서라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의 통치에서 어린이들도 역시 '소외계층'에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도의 모델이었다. 예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린이는 모두 어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지시해 주고,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라잡이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라는 핵심적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어린이를 모델로 사용하셨다(막 10:13-16; 마 19:13-15; 18:3 참조. 눅 18:15-17).

마가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공로나 특권이나 신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³⁰⁾ 세상에서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마 21:31). 사회적으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닮아야 할 모델은 어린아이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른이 어린아이를 닮아야 한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의 사회화, 특히 토라의 교육이 매우 강조되었다.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유대 공동체는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새로운 세대(자녀, 어린이)가 따라가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서는 그와 정반대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어른의 모델이었다. 마가는 누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자기 자녀가 거룩한 교사 예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했던 부모였을 것이다.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께서는 어른들이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접근도 원하셨다. 제자들의 저지를 당했던 어린아이들을 문자 그대로 팔을 벌려 영접했으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베풀어주셨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서 접촉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심으로 당신의 보호와 보살핌을 상징하는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하셨다.³¹⁾

30) Ibid., 48.

31) 마가만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막 10:16)라는 말을 추가했고, 마태는 "안수하시고"라고 했고, 누가는 제스처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태와 누가가 어린 아기를 꼭 껴안고 귀여

예수의 동시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만 유독 그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유대 공동체도 역시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다.³²⁾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는 어린아이에게 특별한 자질을 전가하여 이상화하려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른보다 어린아이를 도덕적으로 우위에 놓음으로 순진하다거나(혹은 거짓이 없음), 보이지 않는 실재에 더 잘 응답하는 영적 직감이 가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³³⁾ 예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하셨다. 어린아이들을 제자도의 모델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의 객관적인 위치, 즉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늘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처럼 살아야만 했다(must).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와 자기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는 신분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겸손과 섬김의 삶이다. 이것은 가정의 권력구조다. 그것의 확대된 더 넓은 사회의 권력 구조에서도 지극히 작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즉 어린아이가 차지하는 자리가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형의 사람에 대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의미를 주해하려면 예수께서 취했던 행동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셨다.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는 ‘어린아이를 너희들의 모델로 삼으라’고 제시하

워하는 예수의 동작을 생략한 것은 자신들의 서술에서 불필요하거나 어른-제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마가만 예수의 어린아기와 접촉하는 그림을 솔직하게 보존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후일 “어린아이들을 껴 앉으시고”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로 표현을 슬쩍 바꿔놓은 사본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꼭 껴앉고 귀여워하심’의 사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기관들이 합당한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바꿨음직하다. W. A. Strange, *Children in the Early Church: Children in the Ancient World, the New Testament and the Early Church*, 49.

32) 예수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이방세계의 어린 아이들은 영아 살해(infanticide) 내지 유기(exposure at birth)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Ibid., 50.

33) Ibid.

는 것이다. 예수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과 행동으로 진술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어른들에게 주신 것이다.³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됨은 주저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무엇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세 복음서는 모두 이 이야기에 이어서 계명은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했지만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연결해 놓았다(마 19:16-30; 막 10:17-31; 눅 18:18-30). 이 청년은 재물과 소유, 그리고 권력의 방해로 전혀 받지 않는 어린아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수의 축복을 받는 어린이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부자 청년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태와 마가는 혼인과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서두로 삼는다(마 19:1-12; 막 10:1-12). 이것은 가족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예수의 교훈을 이와 같이 그룹으로 지어 놓은 것은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를 교회 내에서 독립적인 자리에 놓아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확대 가족'의 한 식구로 간주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마태와 마가는 '가정과 가족'이라는 제목아래 '어린이'라는 주제를 배열해 두고 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공통적인 접근 방법이었다.³⁵⁾

나. 예수와 어린이

어린이는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확대 가족'의 식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예수와 어린이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론 버클랜드(Ron Buclekand)는 "어린이를 작은 어른(mini-adult)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른의 역량이나 범주를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잘못될 수 있다. 어린이,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어른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어른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도 역시 어른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런고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린이를 심각하게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³⁶⁾라

34) Ibid., 51.

35) Ibid., 52.

고 말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롬 1:17)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복음을 제시할 때 받아들이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것을 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서 반응이 변화될 수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른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을 세 살짜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요, 여덟 살짜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것인가?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어린이 사역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신약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 복음서는 예수와 어린이의 접촉에 대한 기록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요한이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요 20:30) 예수와 어린이의 접촉에 대한 이야기까지 낱알이 복음서에 기록해 둘 수 없었을 것이다.

복음서 저자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예수와 어린이의 특별한 만남을 한 차례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자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셨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3-16).

마가와 누가의 표현상의 차이는 각각 ‘어린 아이’(paidion)와 ‘어린 아기’(brepos)라는 단어의 차이다. 사실상 마가가 사용한 ‘어린 아이’라는 말은 특정한 연령의 제한이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예수께서 ‘팔로 안으셨다’는 표현을 볼 때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었음에 틀림없다(눅 18:15-17).

마태는 마태복음 19장 13-15절에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마태는 이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3절)고 어른들에게 도전하셨다. 마태의 진술을 따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른들에게 도전할 목

36) Ron Buckland, Children and God (London: Scripture Union, 1988), 11.

적으로 시각적인 교훈을 하려고 했음직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어린이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하다. 즉 '천국이 이런 자의 것'라는 진술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어른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전이자 초청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둘째,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하여 도전해야 한는데 기초하여 어린아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어른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거나, 혹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는데 반하여 어린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 이 말은 의지적인 행동으로 어른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는 한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예수께서 만났던 사건이 복음서 저자들을 사로잡았던 도전의 핵심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17-27절에 기록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이다(비교, 눅 18:18-27; 마 19:16-26). 이것은 한 사람의 어른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이야기이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음의 진수는 '어린아이처럼 됨'이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예수의 말씀의 기초는 '전적으로 무기력함'이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주심은 어린이가 소유하고 있는 자질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태도를 가장 통렬하게 꾸짖고 반대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함'은 대개의 경우 어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들어가며, 이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구원' 받음에 대하여 말했다. 각각의 경우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기술하는 면에서 유사하다. 어른에게 이 사실은 오류가 없지만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떤가?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구원의 기초라면 말도 할 줄 모르는 한 살 짜리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린이가 자기에게 속했다는 말씀과 동일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어린이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마치 어린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주장한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개와 믿음이 두 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버클런드는 이러한 가정 아래 여섯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 (대답 1)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삶을 시작한다.
- (대답 2)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분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 (대답 3) 그리스도인 부모는 특권을 만들어 준다.
- (대답 4) 세례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분을 형성시켜 준다.
- (대답 5) 세례의 경험은 특권을 더 강화시켜 준다.
- (대답 6)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³⁷⁾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섯 가지 대답 가운데 (2), (3), (4) (5)은 신앙과 양육의 차원에서 어린이를 다루고 있으며, (1)과 (6)은 어린이를 다루지만 입장과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다. 이 대답을 정리하면 두 가지 입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삶을 시작한다. 반대 입장은 모든 어린이는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37) 론 버클런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아래 여섯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우리 집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웃한 두 집에 두 살 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한 가정은 부모가 모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의 부모는 철저한 무신론자이다. 어느 날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가정의 어린아이가 함께 죽었다. 그런데 나는 그 가정을 각각 방문하게 되었다. 두 가정의 부모에게 어린 아기의 운명에 대하여 각각 무엇이라고 말해주어야 할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대부분의 경우 어린 아기는 천국에 갔으며, 하나님은 어린 아기를 무조건 받아주신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은 진리가 아니라 감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일까? 어린이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서 6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각각의 대답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실존을 각자의 입장에서 붙잡고 씨름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Ibid., 26.

(대답 1)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입장은 어린이 전도와 양육의 방향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된다. 그러므로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대답은 모든 연령의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대답을 따르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창 3: 롬 5)을 어린이나 어린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어린아이도 아담의 반역에 연루되었으며, 그 반역에 대한 사죄를 받기 전에 죽는다면 반드시 그 어린아이는 지옥행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로 옮겼다는 의미는 자신의 반역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회개와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입장을 어린이에게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해력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과연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소위 ‘원죄’에 대한 논의이다. ‘원죄 교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교훈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³⁸⁾ 성경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언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반역을 계속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바로 이 점이 논쟁의 문제가 된다. 즉 이 지속적인 반역과 어린 아이의 참여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아담의 반역에 연결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역의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죄가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동일하며,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이다. 이 기본 진리를 혹자는 ‘원죄’³⁹⁾라고 표현했으며, 이 말은 삶을 시작할

38) 바울은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진술한다(롬 5:12). 또 계속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다(고전 15:22).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롬 3:23)고 말한다.

39) ‘원죄’라는 말은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 만든 말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온건한 가르침을 지적하기 위하여 어거스틴이 일단 ‘원죄’라는 말을 조어해서 사용하고 나자 곧 일반화되고 말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성경적인 진리로 확신한 나머지 원죄에 대한 논쟁을 하면 곧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

때부터 죄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다.⁴⁰⁾ 문제의 핵심은 “어린이가 어떻게 아담의 반역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어린아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였다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또 한편 어린아이에게도 죄를 향한 성향이 분명히 있으나 만일 어린아이가 이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답이어야 한다. 첫째, 반역과 죄의 실재, 둘째,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다. 실제로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어린이 사역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만일 어린이도 역시 어른과 동일하게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응답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긴박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긴박감은 가급적 신속하게 어린이를 영적으로 돕기 위하여 ‘결단의 초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배후에 깔려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다. 이 말은 어린이 전도에서 곧 ‘회심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는 어린이 사역자가 원하는 결단을 얻어내기 위하여 어린이의 심리 상태를 조작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그 결과 어린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결단의 초청’을 받을 때마다 여러 차례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⁴¹⁾

(대답 2)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분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경우, 만일 부모의 어느 한 쪽이 그리스도인인 경우 그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자녀의 죄악 된 성품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양쪽이 모두 불신자일 경우 그 어린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 생각은 아브라함 언약(창 17)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신 29), 교회와 맺은 언약(벧후 2:9-10)을 비롯하여 성경의 언약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이 특별한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자녀도 역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바울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Ron Buckland, Children and God, 29.

40) Ibid.

41) Ibid., 30.

밀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전 15:14)고 말한다. 이것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신자일 경우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분을 갖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찬성하는 어린이 사역자나 교회는 긴박성을 가지고 부모들을 전도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전도의 결과 회심한 부모는 가족 가운데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대답 3)은 (대답 2)의 변형이다. 신자의 가정은 결과적으로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녀는 가정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접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되고,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기도 부모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대답에도 언약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어린이 사역자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양육의 질적 수준, 신앙의 모델로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의 헌신으로 도전할 수 있다.⁴³⁾

(대답 4)의 핵심은 자녀의 세례이다. 만일 자녀가 세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받게 되며, 만일 자녀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례의 행위와 관련하여 신앙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교단과 교회는 부모의 신앙을 요구하게 되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약 사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으로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⁴⁴⁾ 그러나 어떤 부모는 유아 세례를 받은 결과 자녀가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때문에 (대답 5)에 더 만족하게 된다.

(대답 5)의 관점은 (대답 4)의 변형이다. 부모의 소망과 신앙의 표현으로서 세례는 신중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례의 행위 그 자체는 자녀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다. 세례는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미래의 제자도를 가능케 해줄 뿐이며, (대답 3)과 같이 자녀를 장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양

42) Ibid., 31-32.

43) Ibid., 33.

44) Ibid., 34.

육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을 뿐이다.⁴⁵⁾

(대답 6)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입장은 설명이 좀더 어려운 가정이다. 영국 성공회 신학자 토마스(W. H. Griffith Thomas)는 ‘모든 어린이는 위대한 대속적 제사에 포함되었으며,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논쟁을 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인격적으로 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므로 범죄할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⁴⁶⁾ 모든 어린이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것은 구원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피스 토마스가 “~할 때까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모든 어린이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였다. 앞에서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대답 1)의 관점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재 이 입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섯 가지 대답을 요약하면 (대답 1)과 (대답 6)의 전혀 상반된 두 가지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대답 2), (대답 3), (대답 4), (대답 5)라는 신앙과 양육을 결합한 형태의 이해가 있다.

다. 어린이와 복음 전도

이제 (대답 2), (대답 3), (대답 4), (대답 5)의 입장과 (대답 6)의 입장을 종합하면, (대답 7)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효과적인 양육이나 전도적인 영향력이 작동되지 않는 한 모든 어린이는 그의 안전한 위치에서부터 표류하게 된다’라는 변형적인 대답이 가능하게 된다.

이 (대답 7)을 달리 표현하자면 ‘반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속’(belongingness that may become rebellion)이라고 부른다. 소속된 상태에서 양육을 통하여 반역의 가능성-신앙의 표류-을 차단하려는 염원은 긴박한 신앙 교육과 전도를 실행에 옮기도록 추진하게 된다. 교회 내에 많은 신자들은 아동기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성숙한 제자도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그들은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속에서 양육을 받은 것이다. 일시적인 이탈과 불일치의 현상은 일어날 수

45) Ibid., 35.

46) Ibid., 36.

있으나 그 과정이 끝나게 될 경우 각자의 방법으로 신앙을 표현하게 된다. 소속감을 가지고 성장한 대부분의 경우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오'라는 거절의 응답을 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년기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역의 상태에서부터 회심하는 경우보다 이 경우에는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오'라고 결코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소유한 상태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성인이 되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표류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반역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라고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죄는 극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마약 중독자, 창녀, 정치 지도자, 운동 선수, 미인 대회 수상자들의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극적인 회심이 규범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오'라고 거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예'라는 응답을 요구하게 될 경우 당황하게 된다. 이런 요청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을 소유한 부모의 양육을 받는 특권을 소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신앙을 소유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

(1) 전도와 양육

신앙을 소유한 부모 가운데 (대답 1)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도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확실한 결단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고 단정한다. 그로 인하여 양육과 전도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답 7)은 표현을 달리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어린이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이 하나님의 애정은 그 어린이가 하나님의 애정에 대하여 등을 돌릴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언급해야 할 점이 있다. 어린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로 전환하는 중심축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이 이해를 따라

응답할 것인가 혹은 반역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어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동은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어린이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 어린이는 부모에 대한 ‘전적 의존’(total dependence)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직접 책임져야 할 나이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을 책임 인식 연령(age of accountability)라고 한다.⁴⁷⁾

(2) 책임 인식 연령(Age of Accountability)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상의 어느 한 순간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어린이 각자의 독특한 개체성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관점을 하나의 상자 속에 담아서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사람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막 12:34)는 예수님의 표현을 볼 때 가능하다.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표류하여 나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진리는 어린이 사역자를 포함하여 모든 전도자들이 확신해야 하는 진리이다. 만일 하나님이 친히 한 어린이의 최종책임을 결정하신다면 사람의 책임은 가벼워진다. 다시 말하자면 전도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를 실행에 옮기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응답의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도인으로서 어린이 사역자의 책임은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것뿐이다(고후 4:2). 더 나가서 어린이 사역자는 전도인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되게 하려면 자원하여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고후 4:5).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 요소가 발달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소속의 상태’는 반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깨달도록 어린이를 양육해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생활의 범위 밖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 ‘소속의 상태’는 쉽사리 반역으로 변하게 된다. 전도는 어린이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각 어린이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사려 깊고 주의를 기울이는 전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47) Ibid., 44-45.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작동되어야 한다.⁴⁸⁾

(3) 전도와 양육

기독교 교육과 전도는 공존한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과 양육은 필연적으로 전도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교육에 포함된 요소들이 신학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진실하다면 마땅히 응답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야 한다. 전도는 응답에 대한 내용(content)과 기초를 제공해 주는 교육-전도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조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항상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택하게 되면 어린이 사역의 형식과 입장은 변화하게 된다. 어린이 사역자 존 인츨리(John Inchley)가 지적한 것처럼 “너 예수님에게 ‘예’라고 대답했니?”라는 질문과 “너 예수님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니?”라는 질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단순한 차이지만 그 배후에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른 어린이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놓여 있다.⁴⁹⁾

(4) 어린이 전도의 과거

어린이의 죄(the sin)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됨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두 개의 논쟁거리다. 18세기 영국 교회에서 어린이도 죄인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동시에 어린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린이에게 시급하게 깨우쳐 주어야 하며, 나이를 먹은 다음 응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엄청난 압력이 어린이와 부모에게 가해지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러한 가르침의 반응을 목격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양육(Christian Nurture)를 저술한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은 “나의 논쟁은 어린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쉬넬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부모가

48) Ibid., 45-47.

49) Ibid., 48.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어린이 전도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는 결함이 있다.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주장과 같이 그의 주장도 역시 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어린이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강조했다. 모든 어린이 사역은 죄와 소속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⁵⁰⁾

(5) 어린이 전도의 현재

오늘날 어린이 전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다른 연령 그룹과 동일하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의 경험을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얻게 되는 모델로 삼는다. 이 그룹은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에게 행복했던 순간을 언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울 자신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그룹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바울의 체험은 거듭나야 한다(요 3:3)고 말한 예수의 가르침과 연관지어서, 각 개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찬성한다. 이 사람들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연령 그룹에게 이 결론을 적용한다. 이런 주장 아래 진행되는 어린이 전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은 회심과 동일하다고 본다.⁵¹⁾

(6)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단호하게 내리는 결단이라기 보다 오히려 이 과정을 철저하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점진적인 단계, 즉 제자도로 대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시점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소속됨’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를 신실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쳐주는 것이 곧 전도(evangelism)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 결과 어린이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50) Ibid., 49.

51) Ibid., 50.

내리게 될 것이다. 어린이와 어린이 전도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린이 사역자와 어린이에게 가해지게 되는 부당한 압력을 피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각자의 행보를 따라 여러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즉 첫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독특한 행동 발달의 시계가 있으며, 둘째 개개인의 삶의 체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사역자는 어린이 전도를 단회적인 한 순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시리즈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회심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결단을 내림으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삶의 단계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갈 때, 수많은 결단과 직면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신앙의 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⁵²⁾ 결국 '그리스도에게 항복한다'는 말은 운명을 결정하는 결단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⁵³⁾

(7) 어린이 전도의 요소

지금까지 어린이 전도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합당한 무게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전도는 교육적 전도(teaching-evangelism)가 되어야 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됨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반역과 어린이는 지속적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는 지식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린이는 가족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어린이와 부모 사이에 쉼대를 박아서 안 된다. 우리

52) 예를 들자면 여덟 살 짜리 소년이 자신의 성의 순결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없다. 아직 성적 욕구와 충동이 발동할 만큼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 여섯 살 짜리 소녀가 자신의 결혼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아둘 수 없다. 아직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흔 살이 된 그 소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신학적이거나 보다 오히려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53) Ibid., 51-54.

는 나이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기 부모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어린이로부터 응답을 기대할 것이며, 어린이 각자의 응답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사용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후일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게 될 응답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여러 번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을 기뻐하며, 그 결단의 신실함을 인정할 것이다. 삶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복종이 필요한 다음 영역을 향하여 어린이를 양육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양육이 일어나야 할 장소, 특별히 가정과 지역 교회를 보강하기 위하여 힘써 일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는 ‘책임 인식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응답의 지연과 같이 너무 작은 것을 어린이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린이를 축소판 어른(mini-adult)으로 대하면서 어린이에게 너무 큰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째, 어린이 사역자와 어린이 모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긴급하게 우리의 과업을 수행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린이는 점점 자신의 죄성을 드러낼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긴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궁극적인 동인으로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다.⁵⁴⁾ 교회가 당면한 과업 가운데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감정이 결여된 조작에 불과하며, 열정이 없는 지식은 목적이 상실된 교육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⁵⁵⁾

라. 어린이와 가족

어린이도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서 언급하는 ‘신앙’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질문은 ‘어린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로 바꿀 수 있다. 어린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논하려면, 신약 성경에 언급된 어린이와 신앙에 대한 증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소자(little ones)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54) Ibid., 54-55.

55) Ibid., 55.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기록하며 2절에서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고 한다. 또한 5절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 이 어린아이를 ‘소자’라고 호칭하셨다. ‘어린아이’를 지칭하기 위하여 헬라어 신약 성경은 ‘paid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흔히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예수께서는 ‘소자’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했으며, 꼭 어른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몇 주석가들은 ‘소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5절까지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언급하는 말이었지만 6절 이하에서는 어른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마가복음 9장 42절의 병행구에서 마태복음과 동일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된다. 마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는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한다(막 9:36-37). “어린아이(paidion)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어린아이’와 어린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가는 38절과 42절 사이에 어른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 어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며, 제자들은 그가 예수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지당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유명한 가르침에 뒤이어 “나를 믿는 소자”라는 말씀을 하셨다. 37절의 어린이를 염두에 두셨던 것이 분명하지만 ‘소자’라고 할 때 가장 명백한 것은 38절의 어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한다.

복음서 저자들은 각자 자기가 본 예수의 초상화를 자기 방식으로 그렸다. 그들은 동일한 자료를 각기 자기 방식으로 사용했다. 누가는 연자 맷돌, 바다,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했다(눅 17:2).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말은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 1절에서 누가는 “실족케 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3절에서는 어른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증거는 예수께서 ‘소자’라고 언급하셨을 때 어른을 의미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어른과 어린이를 모두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만 이와 같은 논쟁의 부담을 짚

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마태복음 18장은 그 짐을 짊어지게 하고, 어린이와 신앙에 대한 교훈은 에베소서에서 발견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린이들에게 도전한다. 이 도전과 내용, 즉 “주 안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어린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그러한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적용의 문제가 있다. 이 본문에서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를 ‘테크나’(tekna)를 사용했다. 이 말은 부모와 연결하여 모든 연령의 어린이를 지칭하는 말이다. 어린아이들의 그룹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그 초점은 실제로 어린이를 지칭하거나 십대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⁵⁶⁾

둘째로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간수(행 16:29-34)는 가장이었으며, 그의 식구들과 함께 모두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과 실라의 초청에 응답했으며, 그 즉시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 이 가족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성인 종들은 틀림없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식구들은 모두 가장(家長)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일세기의 ‘확대 가족’에서 어린이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에 틀림없이 포함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연대성’(family solidarity)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와 달리 어린이를 명백하게 언급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디모데에 관한 기록이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4-17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린이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결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말이다. 14절에서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그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하는 말이지 어린이 디모데의 신앙을 직접 언급하는

56) Ibid., 60-62.

말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혼인으로 말미암는 관계를 언급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배우자는 불신자일 경우가 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혼을 반대한다. 신자들은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분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가 되는 것과 다른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만일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갈라서게 될 경우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자녀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깨끗하지 못함'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그러나 이제 기록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어린이의 신분이 불신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본 것이 틀림없다. 불신 배우자의 신분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다. 그러나 신자인 배우자가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16절). 바울이 계속해서 불신자가 신자와 결혼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결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었다.

셋째로 오늘의 가족에 대한 문제이다. 어린이의 존재는 거미줄(web)과 같은 어른들의 관계 속에 있다. 만일 어린이 사역자가 어린이에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거미줄에 접근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 사역(children's ministry)은 반드시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⁵⁷⁾ 그러면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정사역이라고 할 때 한 지붕 아래 동거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nuclear family)을 모델로 생각해 왔다. '핵가족'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혼, 영아 유기, 편부모, 근친상간, 아동 학대, 제도적인 보호 시설과 같은 요소도 '가정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관계의 거미줄(web)은 '확대 가족'이 되었던 혹은 핵가족이 되었던 간에 현대에 와서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 사역을 심각하게 접근하려면 가족과 가족 사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대 가족'인 교회는 교회 밖에 존재하는 깨진 가정을 돌보기

57) Ibid., 81.

위하여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인간인지라 그들도 역시 깨어질 수 있으며, 상처받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암에도 걸리고, 이혼도 하고, 좌절도 당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려 깊은 헌신을 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의 압력에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 그들의 삶을 열어줄 때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어떤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즉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균열 상태(brokenness)를 치유하려면 겸손과 사랑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의 압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실성이 경험되고 드러나야 한다. 복음 전도의 최일선에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은 인간성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균열, 두려움, 좌절에 적용되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함, 아름다움과 힘과 목적이 방출되어야 한다. 기독교 가정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토양 속에 이러한 긍정적인 자질이 심겨지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요구 옆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던지는 도전을 놓아두었다. 권리와 책임은 근원적인 관계의 양면성이다.

부모에게 주는 긍정적인 도전은 자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다(엡 6:4).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징계뿐만 아니라 돌봄, 관심,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말이었다. 돌봄, 관심, 부드러움과 연결된 확고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교회 내의 많은 가정들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솔직한 대화와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기여해야 한다. 지역 교회란 단위 가족으로 구성된 ‘예수의 확대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가족은 경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전도에서 두 개의 가장 강력한 힘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결혼이다. 그리고 건강한 결혼은 최전선에 배치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최전선이다. 그것은 영적 전투의 초점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가족 내부의 갈등과 이웃과 갈등을 통하여 항상 후방을 강타한다. 사단이 강력한 작전을 펼치는 세 가지 영역

이 있다. 단위 가족의 내부, 그리스도인 가족 공동체, 곧 교회의 내부, 공동체 관계의 내부가 그것이다. 사단은 영적 전투에서 네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군사를 현혹시키고, 둘째, 파멸시키고, 셋째, 일시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게 하고, 넷째, 영구히 방향을 전환하게 한다.

영적 전투는 거창한 싸움이 아니라 끝도 없이 지속되는 가장 지루하고 힘드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로 우리는 생활 속의 곳곳에 숨어 있는 사단의 복병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영적 실재이다.

2. 교회와 신약적 가족 개념

가. 가정 모임으로서의 교회

전 지중해 연안 바울의 발자취가 남겨진 지역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설립되고, 강화되고, 배가되기 시작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케 하고, 수직적 섬김의 관계로 회복시켰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서로 돕고 보살피 주는 '새 사람'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시켰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묶어 주었고, 동시에 사람과 다른 사람도 함께 묶어 주는 역할을 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란 사람과 사람의 연합, 곧 '하나 됨'을 의미한다(엡 4:4-6). 성령의 인격적인 체험이요, 복음은 사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 즉,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가? 어디에 존재하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바울이 즐겨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의 서신 가운데 대략 60번 정도 등장한다. 이 숫자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숫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단어는 바울이 서신을 보낸 여러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을 지칭하는데 가장 즐겨 사용되었다.⁵⁸⁾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말을 사용했던 두 가지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이교사회의 비문에서도 세 번 발견되었는데 거

58)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1), 57-58.

기서는 만남이나 집회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용어는 본래부터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다”⁵⁹⁾고 지적했다.

나. 그리스도인의 모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모임의 장소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에베소에서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전서의 끝부분에서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안부를 전한다(고전 16:19; 행 18:18, 19과 비교). 바울의 편지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오이코스’(oikos) 즉, ‘집’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는 거처, 혹은 집안의 어떤 특정한 한 방을 언급하는 말이다. 혹은 그들의 책임 하에 있던 식구였을 것이다. 만일 전자를 의미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 전부 또는 일부가 모였던 모임의 장소였을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후자라고 한다면 모임의 구성원은 그들의 식구 전원이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일가족 세례 사건(행 10:48, 11:14, 16:15, 33; 18:8)과 확대 가족을 지칭할 때 오이코스를 사용한 예가 있다. 따라서 이 오이코스(oikos)는 그들의 가정을 의미하는 말이 될 수 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거기에 모였는지 혹은 일부만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온 교회’가 함께 모였던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전 14:23). 또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표현한 가이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안부를 전한다(롬 16:23). 로마서 16장은 신자들의 적은 무리들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로마에 돌아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연합해 있는 무리들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의 집의 교회’라는 언급을 만나게 된다(롬 16:5).

바울의 초기 서신들 가운데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임들이나 혹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일관성 있게 사용되었다. 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역동력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어떤 시점에서 한 구역이나 혹은

59) Ibid., 59.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총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한 도시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작은 모임이건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큰 모임이건 간에 그중 한 성도의 가정에서 ‘에클레시아’는 열렸다(행 18:7-8; 20:8).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한 특정한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3세기에도 그 건물들은 로마나 헬라 가정의 전형적인 응접실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 있었다. 유복한 가정의 잘 꾸며진 응접실은 30명 정도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드로아에서 모임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틀에 걸터앉아야 할 정도로 수가 많은 큰 모임이었던 것 같다(행 20:9). 당연히 많은 경우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었다고 본다. 이런 소그룹의 다른 회합의 사람 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수가 최소 10명이거나 최대 100명이었을지라도 평균은 30명 정도였다. ‘온 교회’가 모임 경우에라도 구성원들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일을 지속하는 한 이 친교는 분명히 계속되었다.⁶⁰⁾

바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견주어 ‘에클레시아’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매우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에클레시아’ 개념에는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즉 첫째, 헬라와 로마의 지식층, 그리고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주적인 형제애에 대한 동경-결속, 둘째,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친밀해 질 수 있는 가정(집)-장소의 중요성, 셋째, 자의적이며 종교적인 다양한 모임들의 구성원-공동체 추구와 그 영원성에 대한 탐구”⁶¹⁾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첫째, 적은 무리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발적인 연합체, 둘째, 가정 단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정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셋째, 이 작은 모임들은 초국가적이며 시간에 매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고대사회의 모임에 대하여 사용하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 ‘에클레시아’를 택하고, 모임의 장소로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 가정을 택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가 일상적인 다른 모임들과 외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사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60) Ibid., 59-72.

61) Ibid., 81.

점은 이 용어가 ‘공동체 생활에서 모임’을 핵심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바울은 공동체의 모임을 ‘만남,’ 곧 지속적으로 하늘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으로 보았다.⁶²⁾

다.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바울의 공동체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가 사용했던 은유의 도움을 받게 된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은유 가운데 ‘건물’ 은유가 있다. 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은유는 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다. 이 은유는 한 지역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도들의 사역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바울은 자신을 건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건축자’로 묘사한다. 바울이 공동체를 성전으로 묘사할 때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야 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강조한다.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 전체 건물이 공동체를 나타내고 그 공동체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둔 말이다. 반면 후기 서신에서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교회가 논의 대상이다.

바울이 선호하는 은유 가운데 ‘몸’이 있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서 도입한 것이다. ‘몸’ 은유가 유기적인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바울은 인간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 관련한 용어를 자주 활용한다. 공동체를 ‘몸’으로 표현한 은유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권속’이나 ‘가족’은 무시하거나 단 한번의 언급으로 끝난다. 그 이유는 바울의 글에서 ‘오이케이오이’(oikeioi)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 용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표현이 나온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비유한 것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가족’ 은유는 공동체에 대한 바울 사상의 정수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

‘가족’ 은유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야만 한다.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 이미 이 ‘가족’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바 있다(살전 1:1, 3; 3:11, 13; 살후 1:1-2; 2:16). 예수는 그의 아들이며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이

62) Ibid., 81-85.

되신 것과 그들을 위한 사역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살전 1:10; 갈 4:4-5). 이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용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갈 4:6).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특권이 우리 자신들의 영에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임을 확신케 한다고 말한다(롬 8:14-17).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교제는 세상의 왕을 배알하는 백성, 주인을 둘러싸고 앉아 있는 충성스러운 종, 가장이 자녀들과 둘러앉아 있는 일상적인 가족모임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점진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는 만남과 더 유사하다. 지역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먼저 서로를 동일한 ‘확대 가족’ 곧 동일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식구로 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식구)들에게 할지니라”(갈 6:10)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게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에베소서를 보면 언약의 족속에 속하는 유대인과 전에는 신령한 약속들에 외인이었던 이방인 사이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하늘의 ‘에클레시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교제를 바로 가족에 관한 용어들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 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household)’라고 지적한다(엡 2:19). 따라서 지역 모임이나 하늘의 ‘회중’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⁶³⁾

그 외에도 집안의 직원, 곧 청지기를 의미하는 ‘오이코노모스’(oikonomos), 혹은 ‘둘로스’(doulos; 종), ‘후페레테스’(huperetes; 일꾼)과 같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단어도 있다. 가족 관계의 유형을 묘사하는 용어들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고, 편지의 문단마다 사용한 ‘아델포이’(adelpoi; 형제들)도 있다. 또 ‘자매’라는 말도 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교회 지체간에 얼마나 강한 가족적 관계가 세워졌는지를 보여 준다. 바울은 여러 공동체와 지체들간에 관계를 전체적으로 ‘아비’, ‘어미’, ‘유모,’ 등과

63) Ibid., 87-91.

같은 가정 관계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⁶⁴⁾

가족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울의 용법을 지지하는 분은 예수님이 다. 그분은 자신의 주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셨다(막 3:34-35; 12:30-31).⁶⁵⁾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중요성은 결국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해 볼 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기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당시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과 그 교육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훈련은 어린이의 신앙생활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시행했던 공동체 훈련을 소개하고자 한다.

64) Ibid., 97.

65) Ibid., 100.

제 3 장

성서 유니온(Scripture Union)의 어린이 전도와 공동체 훈련

제 1 절 성서 유니온의 역사

1. 배아기(Children's Special Service Mission)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성서 유니온과의 관계를 술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이젤 실베스터(Nigel Sylvester)가 정리한 패혹적인 성서유니온 역사를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 준 사람은 성서유니온 간사 나쉬(E. J. H. Nash) 목사였다. 첫째, 복음에 관한 그의 설교는 나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갔을 때, 그는 기도와 놀라움 만큼 신실함으로 나를 양육했으며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봉사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했다.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것이다. 성서유니온에서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두 가지는 어린이들의 가치와 매일 성경을 읽는 중요성이다. 이 두 가지를 함으로 성서유니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아이들이 방해하지도 말고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는 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물질적인 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다고 강조하셨다. 세 번째, 나는 성서유니온의 전략상의 원리들을 존경한다. 영국에서 생겨났으며, 영국에 근거를 둔 사역이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갈 때,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런던의 본부에서 조절하는 제국주의적 선교로 전략하기 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제화 및 지역 분산화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가 1960년에 취해졌다. 현재 성서유니온은 자율적 운동과 지구 이사회들로 구성된 가족 같은 모임이다. 그 결과 다양한 은

사를 소유하고 헌신된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것이다. 즉 성서유니온이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는데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귀족적인 영국 신사가 성경구절(물론 흠정역으로-당시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을 북 아일랜드의 란두드노 해변에서 휴가차 그 곳에 온 상류층 어린이들의 유익을 위해 모래 위에 기록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유사한 빅토리아 시대의 사업이, 변화를 거부한 채 오래 전부터 유용성을 상실하고 사라져갔다. 잘 알려진 말로 표현하자면, ‘운동’(movement)이 ‘기념비’(monument)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성서유니온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고,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로 퍼져 나갔으며 극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며, 각각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응답했고, 현대 교육방식들을 사용했다.⁶⁶⁾

가. 먼저 어린이에게 복음을

성서 유니온의 역사는 영국의 한 해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시아 스파이스(Josiah Spiers)라는 젊은 사무원이 휴가차 방문했던 해변에서 어린이들이 조약돌과 해초로 정원을 만들며 노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조시아는 “이 아이들이 조약돌로 성경 구절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때는 1868년 8월 26일, 장소는 북 웨일즈의 한 휴양지 란두드노(Llandudno)였다.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한 성서유니온은 바로 영국의 한 해변에서 출범했던 것이다.⁶⁷⁾

1868년 4월 한 어린이 집회에서 조시아 스파이스는 세관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 톰 비숍(Tom Bishop)을 만났다. 그는 나중에 선교회의 성장에 핵심인물이 되었다. 그의 은사는 사람을 설득하는 문장력과 탁월한 조직력이었다. 이후 그는 이 은사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스파이스와 비숍 두 사람, 즉 자석처럼 끄는 힘이 있는 설교자 조시아 스파이스와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행정가 톰 비숍의 팀 사역이 42년간 지속되면서, 어린이 특별 집회 선교회(Children's Special Service Mission)과 성서유니온은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그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30일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어린이 특별 집회 선교회(CSSM: Children's Special Service Mission)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그

66) Nigel Sylvester, 청소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정길용 역 (서울: 한국 성서 유니온, 1995), 6-7.

67) Ibid., 12.

예배들은 시작부터 초교파적인 것이었다. 스파이어스와 친구들은 성공회 및 비국교도의 사람들과부터 공히 신임을 얻고,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약 20개의 서로 다른 교회와 채플, 주일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첫 번째 연차 모임인 1868년 7월 3일까지 평균 300명의 어린이가 스파이어스의 매주 모임에 참석했으며 등록된 아이들의 수는 687명에 달했다.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첫 해 연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난 일년간 약 1,200통의 편지를 발송했고 거의 400통의 답장이 어린이들로부터 도착했다. 이미 선교회는 자신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였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 주었고, 나머지 어린이들도 아주 희망적이다.⁶⁸⁾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어린이 전도였지만 란두드노 해변에서의 즉흥적인 모임은 그의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반복되었다. 매일 아침 그가 해변에 나타나면 곧 어린이들이 그에게 몰려오곤 했다. 이 소식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 당시 스파이어스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 생계비를 벌지 않아도 전임 사역을 충분히 해 갈 수 있을 만큼 유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후 40년 동안 그는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을 무보수로 CSSM을 위하여 헌신하였다.⁶⁹⁾ 스파이어스의 집회 일정은 짝 짜여져 있었다. 1871년 그는 6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쉴 새 없이 전국을 누비며 11개의 센터에서 집회를 가졌다. 초청해 주기만 하면 전국 어디든지 갔다. 매주 월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집회 장소를 향해 출발했다.⁷⁰⁾ 스파이어스는 일년에 수백 통의 편지를 직접 썼으며 ‘아이들이 이 편지를 보물처럼 생각해서 읽고 또 읽는다는 것’⁷¹⁾을 알고 있었다.

CSSM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는 어린이 전도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단 한번의 집회에서 어린이가 억지로 결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피했다. 그 대신 연속적인 집회를 며칠 동안 열어서 참석한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요청에 응답(response)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는 교파적 논쟁에

68) Ibid., 15.

69) Ibid., 16.

70) Ibid., 17.

71) Ibid., 22.

초연한 입장이다. 지금보다 교회간의 장벽이 더 높았던 시절에 CSSM은 순수하게 초교파적임을 내세웠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어린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 셋째는 CSSM과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 충돌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다른 선교회와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CSSM의 임무는 다른 단체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는 것이었다. 넷째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한계 인식이다. 흥분된 분위기에서 오는 힘이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⁷²⁾

CSSM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CSSM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발 초기에는 전담 간사도 없었고, 런던에서 열리는 중앙 집회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집회는 자원 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스파이어스는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자기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했다.⁷³⁾

나. 전도 문서의 중요성

선교회의 문서 사역이 그 영향력을 해외로 파급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CSSM의 이름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알고 있었다. 성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온 방문자 몇 명은 1870년 스파이어스와 비숍의 해변 전도 집회에 참석한 다음 귀국하여 어린이 전도 집회를 시작했다.

스파이어스와 함께 일했던 토마스 키트(Thomas Kitt)는 비슷한 모임을 1873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Auckland)에서 시작했다. 1875년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에서도 영국을 방문하였고, 스파이어스로부터 들은 개념을 전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편지를 로저라는 청년이 보내왔다. 1875년 비숍은 사무엘 타일러(Samuel Tyler)와 함께 여름 휴가철 독일을 방문했다. 암스테르담에서 첫 주말을 보내면서, 주일 저녁 집회를 시작했다. 3주 동안 그들은 위로는 라인(Rhine)까지 여행하며 교사 모임과 주일학교에서 강연했다. 하일브론(Heilbron)의 모임에서는 1,000명의 어린이가 모였고, 다량의 전도지를 배포했다. 바젤(Basel)에서 어린이 800명이 참석한

72) Ibid., 23-24.

73) Ibid., 27.

집회와, 선생님 200명이 참석한 집회를 가졌다. 이듬해 여름 그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35개의 어린이 전도 집회를 주관하는 해리엇(Harriot)을 만났다. 겨울철에는 매주 평균 2,500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사역이었다.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문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1877년 비숍은 문서 번역과 배포 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대륙에 6주간을 머문 적도 있었다. 그는 먼저 독일어 어린이 전도지를 문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일 년이 지난 다음 이 전도지는 화란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스페인어로 인쇄되었다. 1879년까지 대략 60만부의 전도지가 인쇄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어로 번역판이 마련되었다.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중국어로 번역할 것을 희망하면서 우리 전도지를 중국으로 가져갔다”⁷⁴⁾는 보고를 발견할 수 있다.

다. 성경읽기 사역의 기초

3년 후 CSSM의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 잉글랜드 케직(Keswick)에서 온 젊은 여성 애니 마스톤(Annie Marston)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었다. 아나는 주일학교에서 자기 반 소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격려하고 싶었지만, 어린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도 구약의 난해한 부분에서 고전하다 곧 포기하곤 했다. 아나는 어린이들이 매일 읽어야 할 성경 구절들을 선택해서 목록을 만들어 나누어주었다. 주일마다 어린이들은 지난주에 읽었던 것을 토론했고, 아나는 어린이들이 어렵다고 질문하는 구절을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어린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성경읽기를 계속하고 싶어했다. 아니 바로 이 단계에서 CSSM에 편지를 써 보냈다. 그녀는 후일 “어린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CSSM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 목록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일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⁷⁵⁾고 술회했다.

74) Ibid., 29-30.

75) Ibid., 34.

라. 새로운 조직으로

편지를 받은 톰 비숍은 일언지하에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애니의 제안을 거절했다.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시도 끝에 애니의 노력은 호의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과중한 업무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 비숍의 생각은 돌변하여 이 의견을 위원회에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위원들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더 나가서 이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조직을 어린이 성서유니온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으며, 최초의 회원증이 1879년 4월 1일자로 발급되었다.

2. 성장기(Children's Scripture Union)

위원회는 세부 사항을 의논하면서 성서 유니온의 성경 읽기 체제는 첫째, 어린이들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며, 둘째,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도록 지도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 읽도록 하고, 하루 분량은 12-15절 정도로 정했다. 십대 후반의 청소년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한 성서유니온(SU for Young People)'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별도의 성경읽기 카드를 인쇄했다. 이 카드에서는 '성경을 기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하루 읽기는 성경 분량 중에서 한두 구절을 택하여 하루 종일 묵상하도록 권장했다. 카드의 모양부터 신경 써서 세 번 접게 만들고, 읽을 구절을 수직으로 실었으며, 위 부분에는 '읽기 전에 기도할 것',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구절을 인쇄해 넣었다. 이것은 백 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세계 각국의 Scripture Union이 사용하는 성경읽기 요령이다.⁷⁶⁾ 이 시도는 놀라운 반응을 얻게 되었다. 같은 해 4월 1일에는 6천부, 6월에는 3만 부가 발행되었다. 1880년에는 54,000부가 배포됐으며, 500개 지부에서 사역자들이 일하게 되었다.⁷⁷⁾

76) Ibid., 35. 성서 유니온의 성경 읽기 요령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Bible reading systematically, prayerfully, thoughtfully, and relevantly라고 하겠다. 이것이 100여 년 전 성경 읽기 사역이 출범하던 시점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77) Ibid., 36.

특별히 이 기간에는 성경읽기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 성경읽기 체제는 다른 나라로 신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879년에 성경 읽기 목록 카드가 독일, 스웨덴, 스페인의 기독교 잡지에 실렸다. 그 이듬해 성경읽기 카드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체코에서 발행되었고, 호주, 캐나다, 인도에는 지부가 설립되었다. 5년 후 성경 읽기 카드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벵갈어, 힌두어, 타밀어를 포함해 19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외국 회원은 4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수자는 영국 전체 회원 16,000명을 앞지르게 되었다.

성서 유니온이 10년째 되던 해에는 전 세계 28개 국어로 성경 읽기 카드가 출판되었고, 발행부수는 47만 부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격려의 편지와 보고서가 쇄도했다. 성서 유니온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숍은 또 다른 큼직한 계획을 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월간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문서 사업이었다. 그 잡지는 우리들의 잡지 (Our Own Magazine)라고 이름으로, 매월 여러 가지 기사와 함께 그 달에 해당하는 본문해설도 실었다. 이 잡지는 발행과 동시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일년 뒤 이 잡지의 발행부수는 무려 2만 부에 이르렀고, 5년 후에는 55,000부를 발행했다.⁷⁸⁾

3. 원숙기: 최초의 성경 묵상 교재

원숙기에는 성경 묵상 노트의 출간이 그 주류를 이룬다. 성서유니온의 묵상 교재(Bible reading note)가 최초로 발간된 것은 1886년이였다. 그후 22세의 케임브리지 의과 대학생 찰스 하트포드-베타스비(Charles Hartford-Bettersby)가 교재의 출판과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그 전해 여름 해변에서 전도 사역을 돕고 있던 중, 그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온 많은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성서유니온 모임이 없었으므로 하트포드-베타스비는 어린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톰 비숍에게 편지를 보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읽기 교재와 함께 다른 내용도 곁들인 월간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4개월 후 다섯 명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편집을 맡았고, 비숍이 원고를 점검하여, CSSM에

⁷⁸⁾ Ibid., 37.

서 출간한 우리 소년들의 잡지 (Our Boy's Magazine)가 첫 선을 보였다. 6개월 후에는 헨리 헨킨슨(Henry Henkinson)이 집에서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집필한 매일 성경읽기 본문의 해설이 우리들의 잡지에도 실리게 되었다.

성서유니온이 성경 읽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두 아이디어가 모두 두 사람의 젊은이 아니 마스톤과 찰스 하트포드-베터스비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선교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CSSM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도움을 줌으로써 어린이 전도 사역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어린이 전도의 새로운 바람은 곧 세력이 확장된 태풍처럼 성인 전도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른들도 매일 성경읽기 목록의 분량을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더 나가서 전도와 양육이라는 사역의 양쪽 면이 전도와 성경읽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후 백년이 지나도록 선교회의 역사는 사역의 양쪽 면이 서로 보충하고 도와주면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⁷⁹⁾ 성경 읽기 카드와 나중에 나온 성경 묵상 교재 (Bible reading note)는 더 많은 나라말로 번역되어, 더 많은 나라에 보급되었다. CSSM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환시킨 것은 바로 성서유니온이었다.⁸⁰⁾

4. 세계 속으로, 미래를 향하여

가. 어른에게도 유익한 성경읽기

1880년대 당시 영국 성서유니온은 주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성서유니온은 이미 2년 전에 성인을 위한 성경읽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13세 소녀 아델레이드 휘트니(Adelaide Whitney)는 친구를 통해서 성서유니온을 알게 되었다. 영국을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휘트니는 오빠 W. N. 휘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휘트니는 어느 날 나이 많은 일본인 기독교 신자 센 주다(Sen Tsuda)에게 성경읽기 운동을 소개했다. 노신사는 '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지 않았니?'라고 대답했다. 이 노년의 일본인 신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79) Ibid., 38.

80) Ibid., 40.

초신자였다. 성경을 짧게 나누어 읽는 것은 바로 이런 분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이었다.

한편 1883년 11월 10일에 마틴 루터 출생 400주년 기념행사가 페이지 크나이도에서 열렸다. 휘트니 의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경의 친구’(Seisho no Tomo)라는 역사적인 모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⁸¹⁾ 아델레이드 휘트니는 불과 15세 소녀의 몸으로 일본의 국가 총무(National Secretary)로 일했다. 당시 성경이 일본어로 완역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신약에서 특별한 부분을 선택하여 읽기표를 만들었다. 첫 달에는 340명이 동참했고 그 다음 4월에는 2,000명이 참석했다. 5년 내에 회원이 12,300명이 되었고, 314개 지부 총무들이 생겼다. 11면은 일본어로, 나머지 한 면은 영어로 제작된 월간지 2,000부가 발간되었고, 40종의 어린이 전도지가 제작되었다. 휘트니는 1896년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본 성서 유니온 국가 총무로 일했다.

나. 성경읽기 사역의 다양화

성서유니온은 호주에서도 호조를 보이며 출발했다. 1879년, 성경 읽기 카드가 처음 제작된 지 수개월 이내에, 멜버른 근처 코필드(Caulfield)에 있는 매카트니(H. B. Macartney)가 발행하는 잡지 선교사 (The Missionary)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보급을 담당할 지역 총무들을 임명했다. 1880년에는 성경읽기 카드가 고작 737부 배포되는데 그쳤으나, 오래지 않아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만 회원이 2,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었다. 곧이어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10,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 후 수 년간 호주 성서유니온은 성장을 거듭했다.⁸²⁾

성서유니온은 인도에도 소개되었다. 해변 집회에 참석했던 세 명의 어린이들이 캘커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로버트 윌리엄슨(Robert Williamson)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윌리엄슨은 톰 비숍과 의논하여 성경 읽기 카드를 벵갈리(Bengali)어로 인쇄하였고, 1881년에 6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해변사역을 했던 경력이 있는 브라운릭(F. W. Brownrigg)이 인도의 공무원으로 성경 읽기 카드를 힌디(Hindi)와 우르드(Urdu)어로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성경읽기 카드는 이외에도 오리야어, 마라

81) Ibid., 41.

82) Ibid., 42.

터어, 타밀어로 제작되었으며 상당수의 회원들은 이것을 텔러구어로 만들었다.⁸³⁾ 톰 비숍이 성서유니온 10주년 기념식 연설을 할 때, 5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28개 국어로 번역된 성경 읽기 카드를 사용하여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성서 유니온 운동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 나가는 신호였다.⁸⁴⁾

다. 대학생들의 참여

1880년 초 CSSM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과 강한 연대를 맺은 것이 결정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생 몇 명이 모여서 기독교 대학생 연합회(Inter Collegiate Christian Union)를 결성했으며, 이것을 모체로 나중에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가 만들어졌다. 위에서 말한 두 단체의 설립자 W. F. T. 해밀턴은 어느 해 여름 몇 군데 해변 집회에서 스파이어스를 도와 준 적이 있다. 그는 그 당시 너무 감동된 나머지 스파이어스의 동료 중 에드윈 애로우스미스(Edwin Arrowsmith)에게 케임브리지 대학에 와서 해변 전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31살이었던 에드윈 애로우스미스는 어린이 전도 악단(Children's Evangelical Band)의 창설 대원이었다.⁸⁵⁾ 그의 이름은 CSSM 초기 개척자 명단에서 스파이어스와 비숍 다음에 오를 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해변 전도의 일꾼들이 넘치는 대학 캠퍼스를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1881년에는 많지 않은 대학생들이 해변 전도에 참여했지만 그 이듬해 1882년 스카보로 해변 집회에는 애로우스미스가 대학생으로 구성된 완벽한 전도팀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 이후 해마다 여름이 돌아오면 해변 전도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기독교 대학생 연합회의 정기 행사가 되었으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여름마다 수주 동안 해변 사역을 도와주었다.⁸⁶⁾

라. 학교 사역(School's Work)

1880년 CSSM 초창기에 이미 공립학교의 성서유니온 모임을 위해 성경 읽기 카

83) Ibid., 43.

84) Ibid., 44.

85) Ibid., 48.

86) Ibid., 49.

드가 제작되었다.⁸⁷⁾ 1868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 일부가 우리 소년들의 잡지를 발간하며 성서 유니온의 학교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 1888년 케임브리지의 유능한 학자요, 운동선수였던 조지 필킹톤(George Pilkington)이 공립학교 내에서 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전담 간사로 임명되었다.

마. 첫 번째 캠프

3년 뒤 두 명의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부 학생이었던 스탠리 파우어(Staley Power)와 클리솔드(C. H. Clissold)가 또 하나의 구상 즉, 공립학교 소년들을 위한 전도 캠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CSSM을 방문했다.⁸⁸⁾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전도 캠프가 1892년 8월 잉글랜드의 남쪽 해변 리틀햄튼 근처 루스팅톤에서 대학생들의 주도로 열렸다. 55명의 공립 학교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리벤루드 소령이 책임자였고,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시에라리온의 감독이 되신 참사회원 존 테일러 스미스가 캠프 목사로 봉사해 주었다. 그들은 해변에서도보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 텐트를 쳤다. 테일러 스미스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의 일과는 해수욕, 보트 놀이, 크리켓 놀이, 낚시 등이었고 저녁에는 언제나 가족 기도회로 끝나쳤다. 마지막 날 밤에는 놀이 삼아 캠프에 와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학생 몇 명이 캠프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간증했다고 한다. 1883년에는 세 번의 캠프를 열어야 했으며, 1884년에는 네 번으로 늘어났으며, 도합 254명의 어린이와 59명의 스태프들이 참여했다.⁸⁹⁾

바. 멀리 떨어진 촌락까지

1890년대에 CSSM의 새로운 지부가 복음을 들고 잉글랜드의 오지 마을과 소외된 촌 동네 어린이들을 찾아갔다. 케임브리지 대학생 두 명이 ‘집시 마차를 빌려 타고 여름 방학 내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⁹⁰⁾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카라반을 사용하는 사람은 집시뿐이었고, 이처럼 대학생들

87) Ibid., 51.

88) Ibid., 52.

89) Ibid., 53.

90) Ibid., 54.

의 창의적인 본보기는 CSSM 사역이 신선하게 발전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해서 시골 어린이들을 위한 마차 전도단(Caravan Mission to Village Children)이 탄생했다. 단체는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영을 위해 매년 CSSM의 보조금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1868년 여름 영국의 한 해변에서 시작한 어린이 사역은 두 번째 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구상에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성서 유니온의 일꾼들이 성경읽기 교재를 들고 가서 어린이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도록 돕는 운동을 오늘도 중단 없이 펼쳐 나가고 있다.

제 2 절 영국 성서 유니온과 어린이 사역⁹¹⁾

1. 영국 성서 유니온의 목적

영국 성서 유니온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어린이와 청소년과 가족들이 알게 하고, 둘째,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격려하여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성장하게 하여 헌신된 교회 회원과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종이 되게 한다. 성서 유니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이러한 목적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인 사역의 다양성을 통하여 추구한다.

2. 영국 성서 유니온의 신조

영국 성서 유니온은 1985년 5월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열렸던 성서 유니온 국제 이사회에서 채택한 신조를 영국 성서 유니온의 신조로 삼는다.

3. 영국 성서 유니온의 활동

91) 영국 성서 유니온의 어린이 사역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criptureunion.org.uk에서 인용하였다.

성서 유니온은 체계적인 성경읽기, 어린이 전도, 가족 사역, 공동 생활을 통한 휴일 활동과 캠프, 학교 사역, 훈련, 청소년 사역, 기독교 문서와 시청각 자료의 출판과 보급,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Church Relations), 다른 나라의 성서 유니온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 사역(International Relations)을 한다.

4. 영국 성서 유니온의 사역 원칙

영국 성서 유니온은 위에서 기술한 사역을 실천하는 사역 정신(ethos) 내지 사역 철학(philosophy)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역 원칙은 1992년 성서 유니온 국제 이사회에서 채택한 것을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성경에게 의지함으로 실행에 옮긴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며, 기도의 사활이 걸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성서 유니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

가. 전도와 가르침

(1)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도의 필수 요소로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한다.

(2)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는 관계 형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다.

(3) 복음을 현대적인 언어와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communicate)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4)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섬김 안에서 행동과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강조한다.

(5) 복음은 불가피한 사회적 국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과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속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한다. 우리의 특별한 목적에 비추어, 빈곤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6) 어린이가 자기 가정과 가족 상황과 성숙의 수준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어린이 자신의 연령과 문화와 배경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이를 격려한다.

(7) 거듭남은 성령께서 가져다주시는 심오하며 초자연적 경험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에 응답하도록 초청하되, 피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지양한다.

(8) 예를 들자면 우리를 환영하는 학교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과 타당한 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역해 나가도록 우리는 헌신한다.

나. 성경사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사람을 격려함으로 우리는 총괄적인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성경을 읽음으로 회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과 예배에 이르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2) 우리는 연령과 상황에 적합한 자료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을 위하여 준비한다.

(3) 성경을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규칙적으로 읽고, 또한 독자가 고립된 문단보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한다.

(4)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의 상황(original context)이 말하는 메시지를 그들의 현재 상황(contemporary situation) 속에서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본문을 해석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다. 교회

(1) 우리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들과 긍정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2)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지역 교회의 교제에 참가하도록 우리는 권장한다.

라. 평등과 일치

(1)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믿는다.

(2) 우리는 그러므로 인종, 피부, 성, 언어, 혹은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을 실천에 옮겨나가도록 헌신한다.

(3) 세계적인 성서 유니온은 신뢰에 기초하여 책임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국가별 운동의 한 가족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4) 다양한 배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헌신을 표현한다.

마. 자원 봉사자와 간사

(1) 다수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recruit), 동기를 부여하고(motivate), 훈련하고(train), 갖추어주고(equip), 지원해 줌(support)으로 그들이 동반자의 정신(partnership)을 가지고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수의 간사와 함께 우리는 일한다.

(2) 우리는 성령께서 차별을 두시지 않고 모든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십 은사를 수여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한편, 성서 유니온 운동의 국가적 리더십을 장려한다.

(3) 다양한 배경에서부터 온 간사와 자원 봉사자들인 우리는 조화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논쟁적인 문제들, 예를 들자면 세례, 영적 은사, 교회 직제를 다룰 것이다.

바. 성경적 표준

(1)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성경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의 행정, 우리의 홍보, 우리가 간사와 자원 봉사자를 돌보는 방법을 포함한다.

(2) 가장 고상한 표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최상의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의지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3) 하나님께 의존하고, 부당한 압력을 사용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기독교 대중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림으로 재정적 지원을 간구해야 함을 믿는다.

5. 영국 성서 유니온의 사역

가. 전도 사역자

성서 유니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메시지로 변하는 세상에 응답함으로 한 세기를 넘도록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수의 역할을 감당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성서 유니온의 전도자들은 상호 존경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여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가족에게 하나님의 실재와 적실함을 알리기 위하여 교회를 돕고 있다. 또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신에 차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성서 유니온의 전도자들은 목적과 활동을 신중하게 숙고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와주며, 그들의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서 유니온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전도(evangelism and outreach)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고(equip), 훈련시켜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한다. 교회를 돕기 위하여 지역을 담당하는 일선 간사 팀을 운영한다.⁹²⁾

(1)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투자함으로 그 비전을 실현한다.

(2) 교회가 전도활동에서 더 효과적이고 확신에 차게 되도록 돕는다.

(3) 교회가 위치한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활동하면서

92) 2002년 현재 26명의 전도자가 성서 유니온 일선 간사로 담당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담당 지역을 말한다).

① Steve Beal ② Alan Bennett ③ Richard Chewter(Somerset, Devon, Cornwall) ④ Colin Draper(Lincs, East Notts) ⑤ Helen Franklin(Lancs, Cumbria, Merseyside, Cheshire, Gtr Manchester, N Wales) ⑥ Paul Godfrey(Herts, Bucks, Cambs, Beds) ⑦ Karen Greenidge ⑧ Sarah Hanley ⑨ John Hattam(East Yorks) ⑩ Steve Hutchinson(Severn, Thames & Wye) ⑪ Dai Lewis ⑫ Graham Mann Smith ⑬ Dorothy Mason ⑭ Sheena McEwan ⑮ Jeremy Moore(Lozells Centre, Birmingham) ⑯ Kevin Moore(Norfolk, Suffolk, Essex) ⑰ Frank Nelsson(North East) ⑱ Bev Patterson(Lozells Centre, Birmingham) ⑲ Trevor Ranger ⑳ Charmian Roberts

교회의 목적과 활동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휴가 전도 사역

영국을 6개 지역 (북부, 웨일즈, 동부, 남서부, 남동부, 중앙)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해당 도시에서 휴가 캠프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1) 북부(North)는 콜브리지(Corbridge), 헤이던 브리지(Haydon Bridge), 헥삼(Hexam), 케직(Keswick), 포트 세인트 매리(Port St. Mary) 등 총 5개 도시이다.

(2) 웨일즈(Wales)는 아버속(Abersoch), 크리키스(Criccieth), 헤브론(Hebron), 네핀(Nefyn) 등 총 4개 도시이다.

(3) 동부(East)는 크로머(Cromer), 홀트(Holt), 오우버스트랜드(Overstrand), 셰링햄 & 비스톤(Sheringham & Beeston), 사우스월드(Southwold), 서튼 온 씨(Sutton-on-Sea) 등 총 6개 도시이다.

(4) 남서부(South West)는 브릭스톤 캠프(Brixton Camp), 딜(Deal), 펠팜(Felpham), 헨 베이/그린힐(Herne Bay & Greenhill), 롱반(Longbarn), 롱반 이스트엔드(Longbarn East End), 미니스 베이(Minnis Bay), 모던 팍(Modern Park), 월드스톤(Wealdstone) 등 총 9개 도시이다.

(5) 남동부(South East)는 번머스(Bournemouth (Chattabox), 그레이트 우드(Great Wood), 페란포트(Perranporth), 폴지스(Polzeath), 폴지스 발리 카라반 팍(Polzeath Valley Caravan Park) 등 총 5개 도시이다.

(6) 중앙(Central)은 캄벨리(Camberley), 라거(Lagger, near Dursley, Gloucestershire), 레스터(Leicester), 로젤즈(Lozells, (Birmingham) 등 총 4개 도시이다.

다. 학교 사역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부모요, 정치가요, 사업가요, 시민들이다. 이들은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학교는 젊은이들의 가치와 희망, 그리고 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UIS는 학교와 동반자의 자세로 일하는 간사와 자원 봉사자의 팀을 부르는 말이다.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예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보는 것을 확신케 하는 사역에 헌신한 분들이다.

첫째, 학교 사역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임무는 학교 내 기독교 학생 그룹을 훈련하고 운영, 기독교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를 지원, 종교 교육(RE: religious education)과 학교 예배 인도를 통해서 학교 돕기, 학교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위한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사회 학교와 연결 고리를 만들도록 개인과 학교를 장려,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모델로서 학교 사역 전문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자료와 관련된 사항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성서 유니온은 새로운 자료 'Your Move'를 개발하였는데 이 자료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781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3 가지 질문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그 질문은 첫째, 어린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새 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어린이가 다녔던 옛날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셋째, 어린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새 학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셋째, 학교 사역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영국 성서 유니온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임 학교 사역 간사가 기독교 학생 유니온(Christian Un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간사들은 모임을 운영하고, 공립학교 종교 교육(RE lessons)을 담당하고, 지역 사회 학교를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일을 한다.⁹³⁾ 다수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소수의 전임 사역자가 결과를 극대화한다는 사역 철학을 따라서 영국 성서 유니온은 18세에서 25세의 연령층의 젊은이들을 학교 사역을 위한 자원 봉사자로 모집한다. 성서 유니온은 'Yes, you!'라는 표어를 사용하여 이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탁월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 6명으로 구성된 팀을 조직한다. 학교 사역은 도시와 농촌에서, 일회성 대형 행사와 장기적인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진행해 나간다.

넷째, 사역 일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잘 훈련된 자원 봉사자 팀은 숙련된 전담

93) 현재 영국 성서 유니온의 학교 사역자가 활동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East Berkshire, ② Birmingham, ③ London Borough of Brent, ④ Bristol, ⑤ Cambridgeshire, ⑥ City of London/Hackney/Islington/Tower ⑦ Hamlets, ⑧ Derbyshire, ⑨ North Devon, ⑩ Hampshire, ⑪ Havering/Romford (Essex), ⑫ Lancashire, ⑬ Leicestershire, ⑭ Medway Towns, ⑮ Merseyside, ⑯ Teesside, ⑰ Tyneside, ⑱ Wales, ⑲ Worcestershire 총 19개 지역이다.

간사와 함께 학사 일정에 맞추어 연간 사역을 진행하되, 중요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9월: 유도 주간
- 10월: 주 사역 장소 소개
- 10월: 학교 사역자 훈련 과정을 위한 학교
- 11월: 성경 교육
- 1월: 전도 훈련 과정 '어린이에게 다가가자!'
- 2월: 휴일 전도 사역자 수련회
- 3/4월: 봄의 추수(Spring Harvest)
- 5/6월: 학교 기독 학생 그룹과 주말 보내기
- 7/8월: 휴일 전도와 각종 사역

다섯째, 모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일년이라는 단기 봉사를 위하여 자원 봉사자에게 연간 2,500 파운드 정도의 예산을 모금하도록 권장한다. 이것은 주로 숙식비, 여비, 훈련비용과 용돈으로 사용된다. 부르심을 확신한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와 그 응답으로 이 금액이 모금될 때 이 젊은이들의 생애는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된다. 모금이 완료되면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Yes, you!'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드릴 것을 권면한다. 다른 사람들, 출석 교회, 가족과 친구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부탁하게 한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일 년의 단기 사역을 위하여 예산이 확보되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권장한다.

라. 휴가 사역

휴가철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마음이 설레이게 마련이다. 휴가를 101퍼센트로 즐기기 위하여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세에서부터 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넘쳐나는 활동을 원하기도 하고, 혹은 조금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여유를 만끽하고 싶어한다. 영국 성서 유니온은 이런 청소년의 휴가 심리를 충실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에 이어서 무엇보다 처음 만났지만 우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 사귄 친구와 추억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도 새로운 경

힘이 될 수 있다.

영국 성서 유니온은 게임, 수영, 운동, 소풍(때로는 picnic lunch라 하여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여 조별로 숙박 장소에서 가까운 명소를 도보로 다녀오는 것을 말한다)과 같은 활동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신앙, 그리고 크고 작은 논쟁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잘 조화시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휴가철에는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자면 카누타기, 경주용 소형 자동차 시합, 컴퓨터 교육, 연극, 음악, 등산, 윈드서핑 등 젊은이들이 흥분과 함께 휴가를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성서 유니온은 100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평범한 또 하나의 휴가 캠프가 아니라 재치와 재미가 넘치는 최상급 캠프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마. 출판 사역

성서 유니온은 출판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돕는 자료를 공급한다. 다양한 문서는 사역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쳐 준다. 이러한 모든 문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감동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자료는 또한 신앙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려는 교회에게 유익을 준다. 가장 대표적인 문서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도움을 주는 성경 읽기 교재이다.

- ① Daily Bread: 활자매체 형태의 성경읽기 성인용 교재, 온라인 접속 가능함
- ② Closer to God: 온라인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읽기 교재
- ③ Encounter with God: 활자매체 형태의 성인용 성경읽기 교재. 온라인 준비중임
- ④ Snapshots: 8-9세 어린이용 성경읽기 교재
- ⑤ One Up: 10세 이상 어린이용 교재
- ⑥ Disclosure: 15세 이상 어린이용 교재

또한 주일학교 공과(SALT),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서적, 어린이 사역을 비롯하여 청소년 사역, 학교 사역, 전도 사역, 휴일 전도와 캠프 사역을 위한 각종 자료, 시각

자료(Video Resources)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일을 한다.

바. 교회 관계(Church Relations) 사역

지역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잘 훈련되고 자격을 갖추었는가 살펴 보게 된다. 특별히 전도 사역, 학교 사역, 휴가 전도 및 캠프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교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통하여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긴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교회가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고, 학교 사역과 전도 사역, 그리고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일선 간사들과 연결시켜 준다.⁹⁴⁾ 또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며, 최신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1) 동반자 관계

성서 유니온의 다양한 사역과 소식을 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자원하는 분 가운데 교회 담당 대표(SU Church Representative)를 선임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서 유니온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 또한 기도 그룹을 조직하고 성경 읽기와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성경읽기 노트를 주문하며 성서 유니온 홍보 잡지(Essentially SU)를 구독한다.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2) 훈련

성서 유니온 교회 관계 사역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일 학교와 주말 저녁 클럽을 운영하되 성서 유니

94) 성서 유니온과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일을 위하여 12개 지역별로 전담 간사가 일하고 있다. ① Bournemouth(Mark Lane), ② Bridlington North(Elizabeth Charlton), ③ Cheltenham(Ann Jordan), ④ Chester-le-Street County(Colin Jackson) ⑤ Derby(Ruth Wills), ⑥ Downham Market(Douglas Morgan), ⑦ Exeter Devon(David Northcote-Passmore), ⑧ Gloucester(Michael Hews), ⑨ Kings Lynn Norfolk(Mike Brown), ⑩ London(Kenny MacArthy), ⑪ Poole(Joy Young), ⑫ Yeovil Somerset(Juliet Beable).

온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임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팀은 아무런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 훈련 기회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세미나는 주로 강의와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전시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⁹⁵⁾

사. 국제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사역

전세계 135개 성서 유니온 운동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국의 성서 유니온 운동은 두 가지 목적, 즉 기쁜 소식을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일과 동시에 성경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는 일을 하되 자신의 문화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

영국 성서 유니온은 해외의 성서 유니온 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한다. 성서 유니온은 신청자를 면담, 선발, 오리엔테이션, 훈련하여 출발에서부터 귀국할 때까지 모든 과정과 절차를 도와준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할 때 EMA(Evangelical Alliance Mission)의 단기 선교를 위한 최상의 실천 요령(Code of Best Practice in Short Term Mission)을 적용한다.

(1) 해외 단기 사역

단기사역 지원 국가는 다음과 같다. 남아프리카에서는 학교 사역, 캠프, 에이즈 퇴치 및 예방 운동(Aid for AIDS)을 전개하며 인도에서는 학교 사역, 캠프를 전개한다. 페루에서는 학교 사역, 캠프, 노숙 어린이 돌보기를 전개하고 우간다에서는 학교 사역, 캠프, 에이즈 퇴치 및 예방을 지원한다. 또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학교 사역, 캠프를 지원한다.

95) 2002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세미나 일정은 아래와 같다. ① 14th January(West Bromwich), ② 19th January(Bala), ③ 9th February(Derby/Watford), ④ 18th February(West Bromwich), ⑤ 23rd February(Milton Keynes), ⑥ 9th March(Cheltenham), ⑦ 11th March(West Bromwich), ⑧ 18th March(Stockport), ⑨ 25th March(Stockport), ⑩ 13th April(Highley, Shropshire), ⑪ 29th April(Stockport), ⑫ 4th May(High Leigh, Oxon), ⑬ 18th May(Newport, S Wales).

(2) 국제 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2001년 9월 영국 노팅엄에서 성서 유니온국제 대회가 열렸다. 전세계 국가 성서 유니온에서 참석한 대략 900명의 대표자들이 성경 공부와 훈련 세미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체험하였다.

제 3 절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과 어린이 전도⁹⁶⁾

1.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목적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목적도 영국 성서 유니온의 목적과 동일하다.

2.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신조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신조는 1985년 5월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열렸던 성서 유니온 국제 이사회에서 채택한 신조를 수정 없이 따르고 있다.

3.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활동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지역 교회와 더불어 동반자적 자세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가족에게 알려주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대하여 위탁하도록 장려하는 일을 한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2명의 전임 간사가 다수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다양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첫째, 전도와 성경읽기 사역이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위탁하는 것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143) 뉴질랜드 Scripture Union의 자료와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sss.scriptureunion.org.nz에서 수집했다. Scripture Union in New Zealand의 주소는 P. O. Box 760, Wellington, New Zealand Phone: + 64 (4) 385 0485, Fax: + 64 (4) 385 0483, Email: info@scriptureunion.org.nz이다.

와 생명으로 길을 밝혀주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각자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둘째, 교회의 동반자가 되도록 한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리더쉽 훈련, 성경읽기와 자료 제공, 전문가가 조언과 자료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어린이 휴일 프로그램,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에서 기독교 학생 그룹 운영을 통하여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에 복음 전도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셋째, 캠프 사역이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위대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이용하여 설원에서, 해변에서,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울창한 삼림 속에서, 카누타기를 통해서 뉴질랜드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창조주를 소개하는 일을 한다. 넷째, 휴일 프로그램과 방과 후 클럽이다.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거주하는 장소, 시외에서, 도심지에서, 휴일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한다. 다섯째,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관계 형성을 통하여 우정이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되도록 장려한다.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위탁을 증대시키도록 한다. 예수와 동행하는 생활의 실재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섭취하도록 돕는다.

4.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사역 원칙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사역 원칙은 영국 성서 유니온의 사역 원칙과 동일하며, 1992년 성서 유니온 국제 이사회에서 채택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5.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의 사역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성경 사역, 캠프 사역, 학교 사역, 어린이와 가족 사역, Crusader Lodge 운영, 출판과 자료 보급 사역을 한다.

가. 성경 사역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성경은 성서 유니온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항상 읽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매일의 생활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목

적을 위하여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개인 성경읽기 자료와 그룹 성경 공부 자료를 제작하고, '성경을 열어보는'(Bible opening)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간사를 두고 있다. 전담 간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와주는데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브라이언 질리스(Brian Gilles)를 전담 간사로 두고 있다. 브라이언은 주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자원 봉사자(Scripture Union Bible Reading Representative)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과 새로운 일꾼을 모집하고 발굴하는 일, 교회 안과 밖의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에서 성경읽기를 소개하는 일, 성서 유니온 성경읽기 노트와 각종 문서를 소개하고 사용 요령을 가르쳐주는 일, 교회 안과 밖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 어린이 가족 사역 담당자와 학교 사역 담당자와 팀으로 사역을 담당한다.

성경읽기 요령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한다. 내가 오늘 읽을 본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깨달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편 119편 18절을 사용하여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린다. 두 번째 단계는 그날의 본문을 소리 내서 읽어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는다.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의 의미를 깊이 그리고 잘 생각해 본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성서 유니온의 성경읽기 노트를 읽으면 독자의 깨달음을 도와줄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읽은 성경 본문을 기초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 또 그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격려를 받게 된다.

성경 공부 캠프를 살펴보면 정상급 성경학자가 진행하는 심도 있는 성경 공부와 그룹 토의와 나눔의 순서로 진행되는 Bible Study Camp Ponui Island가 있다. 산책을 겸한 휴식, 수영, 보트놀이, 요트타기를 즐기면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가 진행된다. 주로 천막생활을 한다.⁹⁷⁾

나. 캠프 사역

97) 2002년에는 1월 18-24일까지 Ponui Island에서 열리며, 강사는 Dr. Derek Tovey (College of St. John the Evangelist (Anglican) and Trinity Methodist Theological College in Auckland)이다.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는 "Following Jesus on the Way: Reading Mark Today"이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승마, 동굴탐사, 요트 항해술, 카약타기와 같은 여러 가지 야외 활동(outdoor activities)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제공한다. 캠프 참가자들(campers)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휴가를 즐기고, 친구를 사귀면서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으며,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캠프 리더들은 모두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며, 리더들도 역시 캠프 참가비를 내야 한다. 캠프의 진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녀 공동 학습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캠프 사역은 학교 사역과 연결하여 협동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두 개의 캠프 즉, North Island Scripture Union Camps⁹⁸⁾와 South Island Scripture Union Camps⁹⁹⁾로 구분한다.

다. 학교 사역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학교 사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학교 적령기에 이르면 학교에 가야 한다. 학교는

98) 총 18개의 캠프가 여름에 열린다. ① Kicking Bak in the Bay(11-13세 남녀 공동 참가) 카누타기, 스노클링, 수영 등을 훈련, ② Coromandel Canoe Cruise, 카약타기, ③ Northern Surf Sports(10-13세) 서핑, 윈드서핑, 스노클링, 카누타기, ④ Motutapu Marine Extreme 수영, 스노클링, 등산 ⑤ Ponui Junior ⑥ Ponui Senior(11-13세 남녀 공동 참가) ⑦ Happy Valley Horse Camp Senior Girls ⑧ Happy Valley Horse Camp Junior Co-ed ⑨ Happy Valley Horse Camp Senior Co-ed ⑩ Happy Valley Horse Camp Junior Girls ⑪ Horse Trekking Special ⑫ Lake Okaitana Camp 산악 자전거 타기 및 보트타기 ⑬ Ultimate Sports Adventure(9-13세) 카약타기와 수상 스키 ⑭ Why Tomo(9-13세 남녀 공동참가) 동굴탐사 및 삼림 캠프 ⑮ Kapiti Coast Discoveries Multi-advanture camp ⑯ Komako Mountain Bike Camp 산악 자전거타기 ⑰ Skate Camp 스케이트보드타기 ⑱ Rugges Ruahine Ramble(10-13세 남녀공동참가) 루아히네섬을 종단하면서 트래킹과 등산.

99) 총 8개의 캠프가 북쪽 섬에서 열린다. ① Nelson Lakes(11-13세 남녀 공동 참가) 스펜서 산에서 생존 훈련 ② Lake Opuha(7-10세) 수영, 카누, 윈드서핑, 산악 자전거 타기 ③ Pigeon Bay Panacea(9-13세) 요트타기, 윈드서핑, 카누타기, 스노클링 ④ The Wild West(11-13세) adventure 중심으로 모든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⑤ Te Anau Wind & Water(7-10세 남녀 공동참가) 각종 수상 스포츠 경험 ⑥ Lake Johnson 2001 (8-10세 남녀 공동 참가) 카약, 수영 ⑦ Sail Rakiura(11-13세 남녀 공동참가) 요트항해, 보트타기, 스노클, 수영, 트래킹, 등산 ⑧ Wanaka Experience(11-13세 남녀공동참가) 수상 스포츠.

배움의 공동체에 속한 어린이가 주중 5일 동안 항상 만나는 장이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학교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탐구한다. 그들은 기독교가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와 최초의 만남을 갖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다. 그들은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삶으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재를 목격하게 된다. 학교 안의 기독 학생 그룹의 본질은 기독 학생들이 또래 집단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키며 생활해 나가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¹⁰⁰⁾

개별 학교 안에서 전도와 제자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교사역(SUIS: Scripture Union in School) 팀은 프로그램에 집착하지 않고, 학생들의 요구(need)에 부응하는 활동을 계획한다.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 학교 사역팀¹⁰¹⁾은 기독 학생 그룹 리더에게 기도 후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후원과 격려, 리더가 수행하는 학교 사역에 대하여 리더의 출석 교회와 대화(communication)를 하고 고품질의 리더십 훈련과 리더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학교 사역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양질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운영 자료 제공을 살펴보면 학교 사역 자료 색인, 그룹 지도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들의 질문,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독교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라. 어린이와 가족 사역

영국 성서 유니온의 출발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변 전도(beach mission)

100) 뉴질랜드 Scripture Union의 홈페이지 <http://www.scriptureunion.org.nz/suis/index.htm>에서 인용.

101)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5명의 학교 사역 전담 간사를 두고 있다. 초등 학교 교사 출신으로 카약의 명수이며, 야외 활동(outdoor activities)의 전문가 John(South Auckland 지역 담당),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었으나 어린이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Kingsley(Central Auckland/Northshore 지역 담당), 어린이와 젊은이들과 관계형성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Kim(Manawatu/Palmerston North 지역 담당), 전직 교사 Michelle(Christchurch 담당이지만 Nelson, Marlborough, South Canterbury, the West Coast로 방문함), 캠프 운영 전문가이며 동시에 학교 사역자인 Brenton(Otago Southland 지역)이 학교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다.

였지만,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어린이와 가족 사역(Chifam: Children & Family Ministry)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SUNZ의 목적은 오늘의 세계에 적실하며 감동을 자아내는 방법으로 어린이와 가족에게 성경을 열어주는 것¹⁰²⁾이다.

소수의 전담 간사¹⁰³⁾가 다수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교회와 동반자적 정신을 가지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SUNZ는 적절하며 고품질의 훈련, 사용자가 친근감을 느끼는 자료, 흥분을 자아내는 프로그램, 연령별 성경읽기 지침과 요령, 모든 연령층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준다. 어린이와 가족 사역을 위하여 SUNZ는 성경 읽기 클럽, 1일 어린이 잔치 'I Smell Treasure!',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휴가 프로그램, 어린이 사역자 훈련, 뉴스레터 발행을 하고 있다.

성경 읽기 클럽을 살펴보면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On Target'과 고학년 어린이를 위한 'One Up' 클럽을 운영한다. 클럽에 가입하면 퍼즐놀이, 퀴즈풀기, 성경 만화를 즐기면서 성경을 깨달아 간다.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의견과 간증의 글이 실린 뉴스레터를 보내준다. 1일 어린이 잔치로서 'I Smell Treasure!'가 있는데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패러디한 게임과 연극, 이야기와 활동이 펼쳐지는 어린이 잔치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해적, 인어의 복장과 분장을 하고 잔치 진행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보물찾기를 한다. 해적선장으로 분장한 Chifam 사역 간사가 어린이들이 찾아낸 보물 상자를 열고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보물(왕하 22-23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낭독자 어린이와 인터뷰 형식으로 낭독한다. 그리고 주최측이 준비한 소책자 'Top 10 Stories Jesus Told'를 나누어 준다. 소책자를 받아들면서, 어린이들은 한 목소리로 'A-harr! I SMELL TREASURE!'라고 외친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휴가 프로그램으로 3일 동안 진행되는 'Groundbreakers'가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발판을 마련했던 세 인물, 요나, 느헤미아, 예수님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102) <http://www.scriptureunion.org.nz/chifam/index.htm>.

103)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어린이와 가족 사역을 위하여 5명의 전담 간사를 두고 있다. Derek Piper(Wellington & the Lower North island 담당), Andrew Ramsbottom(Auckland Regional Office, 그러나 North Cape에서부터 Bombay Hills까지 담당한다), Hilary Hague(자료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 담당), Karen Poy(Southland 담당, 특히 20년간 출석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으며, 주 20시간씩 성서 유니온 자원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어린이 사역자 훈련으로서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이 어린이 사역자에게 제공하는 훈련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비전과 기초, Come and Follow(예수님을 따르라고 어린이를 초청하기), 연령별 행동 발달과 인지 단계, 휴일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 클럽 운영 요령, 주일학교 커리큘럼 SALT 운영, 물 위를 걷기, 대규모 집회 운영 요령, 폭풍을 잠 재우기, 소그룹 운영, 어린이 기도 훈련, 어린이와 성경 사용 훈련, 모든 연령층이 참석하는 예배 기획, 가족을 위한 끈끈히 풀, 하나님과 가족의 결속을 다지기,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뉴스레터 발행 사역이 있는데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은 어린이와 가족 사역자를 위하여 뉴스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뉴스레터를 격월로 발행한다.

마. Crusader Lodge 운영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 학교 사역자와 기독교 학생 클럽을 위하여 세운 통나무 캐빈이다. 캐빈은 Chateau 근처 Ruapehu Mt. 해발 1,249 미터에 위치하며 로지 운영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방과 침실, 창고와 샤워실, 세탁실이 있고, 아래 층과 이층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방해를 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

바. 출판과 자료 보급 사역

뉴질랜드 성서 유니온 출판부는 성경읽기 사역, 학교 사역, 어린이와 가족 사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출판하거나 영국 성서 유니온 출판부에서 수입 배포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읽기 노트는 Join In-Jump On(5-7세), Hotshots(8-9세), Find Out(날자 표시가 없는 노트)로서 Find Out about Jesus and His Friends와 Find Out about God and His World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Snapshots의 4종이 있다. 십대를 위한 성경읽기 노트는 One Up(11-14세), Dayzd(14-18세), Disclosure(15세 이상)의 3종이 있다. 어른과 가족을 위한 노트는 Merry-Go-Round-the Bible(가족을 위한 짧막한 내용), Closer to God(어른용), Daily Bread(어른용), Encounter With God(심도가 있는 내용으로 지도자용)의 4종이 있다. 또한 26종의 성경 공부 내지 참고 자료가 있고 시각 장애자를 위한 Daily Bread 카세트 제작 보급하고 있다.

제 4 장

한국 교회 주일 학교 현황

제 1 절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의 전래¹⁰⁴⁾와 함께 시작되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았던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 安連, 1858-1932)의 입국과 함께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¹⁰⁵⁾ 당시 폐쇄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선교

104) “운양호(雲揚號)를 몰고 온 일본과 1876년에 강화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은둔국(Hermit Kingdom)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와 같은 외세 앞에 나라의 문빚장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차피 개국은 하였지만 종교 신앙의 전파도 허락한다”는 조건을 수락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산양(山陽)에서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될 때, 금교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그 이듬해 1883년 11월 영국, 독일의 두 나라와 수호조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서양인들의 거주지에서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예배의식을 집행해도 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884년 6월 일본 주재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MacLay)가 김옥균을 통하여,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해도 좋다는 상감의 윤허를 사사로이 받은 적이 있다. 예수교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정에서 드높던 때, 예수교는 왜양이체(倭洋異體)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선교의 자유부터 추구하지 않았으나 의료와 교육을 통한 헌신과 박애의 자세는 신교 자유의 윤허를 촉구하는 소리를 묵청 돌구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서구형 개신교와 조선의 만남은 네델란드인 벨트브레(John J. Weltvree, 朴燕)이었으나, 선교에 임하지 못한 채 동화되어 살았을 뿐이다. 동일한 네델란드인 하멜은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도 갖고, 분석도 했으나, 그가 남긴 기독교적인 영향은 전무하였다. 1832년 7월 세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칼(Karl August Friedrich Gutzlaff)이 제주도 해안에 발을 디뎠으나, 선교자로서의 열의는 상역(商易)에 감추어지고 말았다. 책과 직물, 씨 감자와 포도주 양조법을 가르쳐 준 채 그의 발길은 “격한 바람이 불던 어느날 아침” 이 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1886년 병인의 교난이 하늘을 찌르듯 충천하던 때, 로버트 절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는 칼을 휘두르는 조선 병사에게 한 권의 성서를 내어주면서 세상을 떠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다.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만주 목단(牧丹) 주재 스코트란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 1842-1915)와 존 매킨타이어(John McIntyre)가 “한국 교회사 최초의 페이지에서 길이 빛날 공헌”을 남겼으며, 한국 선교의 첫 틀을 잡았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122-152.

전략으로 교육과 의료 봉사를 먼저 착수했다.

1. 여명기(1884-1919)¹⁰⁶⁾

1887년 정식으로 학교와 병원이 황제의 윤허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1885년 8월 3일 배재 학당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10월 16일 정신 학교를 각각 설립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교육의 주춧돌을 놓았다.¹⁰⁷⁾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거의 동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무렵 주일학교 운동이 이 땅에 태동되었다. 스크랜톤 부인의 보고서에는 “1888년 1월 15일에 우리는 여성 주일학교를 조직했다. 주일학교 학생 수는 소녀 3명, 거류민 그리고 선교사 본부에서 1명 모두

105) 알렌의 활약으로 1885년 4월 10일 광혜원(廣惠院)이 병원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감리교의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 목사 부부가 조선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1885년 4월 5일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가 정식으로 첫 발을 내디딘 개신교 선교의 원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사람들은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처 세 사람이었다. Ibid., 152.

106) 한국 교회의 창립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날을 기점으로 하지만, 각 교단별 기독교교육사의 시대구분은 입장과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감리교의 전래와 선교의 제1기(1885-1919), 주일학교 운동 확장의 제2기(1920-1945), 교회교육 재건의 제3기(1945-1960), 기독교교육 전문화의 제4기(1961-현재)로 구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교단에 국한하여 시대 구분을 하지않고, 한국교회 전체의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여명기(1884-1905), 준비기(1905-1922), 개화기(1922-1930), 암흑기(1930-1945), 재건기(1945-1960), 반성과 도약기(1960-1970), 성장기(1970-현재)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해방 이후에서 현재까지 복구기(6·25동란-1960), 반성기(1960-1970), 정돈기(1970-1994), 도약기(1994-현재)로 나누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자주적 신학교육형성의 시기인 제1단계(1940-1960), 미국의 기독교교육학 이론을 수용하고 세계교회와 대화하였던 시기인 제2단계(1961-1968), 교단의 교육정책과 교육지침을 만들고 실행한 시기인 제3단계(1969-1986), 그리고 제5문서 발표 이후의 제4단계(1987-현재)로 나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1945년을 시점으로 재건기(1945-1953), 부흥기(1954-1965), 안정기(1965-1976), 성장기(1976-현재)로 나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구분은 준비기(1953-1974), 성장기(1974-1985), 정착기(1985-현재)로 하였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교단의 고유한 역사와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강조의 공통점은 주일학교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며, 예장 통합의 경우는 전자의 입장을 수용하되 교육과정의 설정과 교재개발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한국교단의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 논총 5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9), 15-17.

107) 장원철,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9), 139.

12명으로 시작했다”¹⁰⁸⁾고 당시 서울 정동 이화학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주일학교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그해 3월 11일 남성 주일학교가 조직되었다. 아펜젤러는 “베델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어제는 14명이 참석했다”¹⁰⁹⁾고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 1889년 평양 6개 처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는 경향 각지에 세워지게 되는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회 수는 나날이 늘어갔고, 교회마다 독자적인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으나, 아무런 협의체가 없었다. 1905년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선교 연합 공의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¹¹⁰⁾를 조직한 것이 조직적인 운동의 출발이었다. 6년 후, 1911년에 이르러, 한국인 지도자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¹¹¹⁾

2. 개화와 암흑기(1912-1945)

캐나다 선교부 총무 암스트롱이 한국을 방문한 인상을 “한국은 백두산 천지못과 같이 잔잔하다”고 했다.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채 문빔장을 걸어 두었던 나라의 모습을 빗대어 한 말이었다. 선교사들의 속속 입국함과 함께 주일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터전을 닦아 놓은 것이다. 주일학교 운동이 발전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던 해 1911년 세계 교회학교 연합회는 브라운(F. M. Brown)을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송했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하인즈(Heinz)와 각국 대표 300여 명이 1913년 4월 19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던 주일학교 대회에 내빈으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4,700 여명이 운집하여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총독부 관리들과 한국 사회마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¹¹²⁾

108) 김폴린,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75-76.

109) Ibid.

110) 주일학교 위원회는 기독교 교육을 전담하는 각 선교회 선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통일 공과를 편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M. L. Swinhart(남장로회), W.N. Blair(북장로회), Allen D. Clark(장로회), L.H. Foote(캐나다 장로회), McRae 호주 장로회), C. T. Collyer(남감리회), B. W. Billings(북 감리회), Mrs. W. A. Noble(북 감리회), J. H. Holdcroft(장로회) 9인의 선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Ibid.

111) Ibid, 140. 주일학교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인 지도자들의 이름은, 구전에 의하면 윤치호, 현순, 홍병선, 변성욱, 남궁혁, 한석원 제씨였다.

제8회 세계 주일학교 대회를 전후하여 세계 각국 대표들이 7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방문을 통한 교회교육에 대한 지도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운동에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¹¹³⁾ 그 결과 1921년에는 '전국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하였고, 그후 4년마다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1933년까지 계속되어 오던 중 1938년 일제의 간섭과 탄압으로 해체되고 말았다.¹¹⁴⁾ 주일학교의 발전과 함께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위원회는 주일세계를 계간으로 발행하였다.¹¹⁵⁾ 초기 세계 주일학교 협회 회장 하인즈의 주일학교를 번역하였고, 홍병선의 저서 아동심리학과 근세 주일학교 교수법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선교 공의회는 만국 주일공과를 발행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여 1913년 집필자와 내용을 크게 정비하여 변화를 시도했다. 그 해 유년부 공과를 필두로 하여 각부의 공과가 계단식으로 편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계단 공과는 너무 복잡하여 사용이 불편했으므로 1년을 넘기면서 사용이 중단되고 말았다. 1919년부터 1920년까지 통일 성경 보통 공과라는 교재가 출간되었고, 1921년부터 만국 통일 공과를 출판하여 1940년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1920년 1월 교회학교 교사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계단공과에 맞는 학생용 공과를 게재하였다. 이 잡지는 1930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¹¹⁶⁾ 1922년 11월 1일 서울 성공회 회의실에서 조선 교회 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1937년 총회를 끝으로 일제의 간교한 탄압 아래 해체될 때까지 15년 동안 주일학교 운동의 발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기여를 하였다.¹¹⁷⁾

112) Ibid., 188-189.

113)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육성할 목적으로 세계 주일학교 협회는 3년 동안 해마다 6개월씩 각 교회를 방문하여 지도할 세계적인 지도자를 파견했다. 이 방문 지도에 힘입어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되었고, 제1회 대회는 1921년 서울에서, 제2회 대회도 역시 서울에서 1925년 10월에, 제3회는 1929년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 대회 때는 세계 주일학교 협회 회장 톰슨(J. V. Thomson) 박사가 참석하였고, 그동안 방한했던 사람들은 모두 900여 명에 이르렀다. Ibid., 189.

114) 장원철, 기독교 교육사, 140.

115) 1919년 1월 5일 주일세계는 계간으로 창간되었다. 홍병선이 편집인이 되어, 조선 예수교 서회가 출판을 맡았으며, 이후 4년간 발행을 계속하였다. 김폴린,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 189.

116) 장원철, 기독교 교육사, 141.

117) 김폴린,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 193.

3. 재건과 도약기(1945-현재)

선교사 중심의 주일학교 위원회에 6인의 한국인 지도가 참여하였던 1911년 이후 이 땅의 주일학교 운동은 1940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30년 동안 숨 가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미국 선교사들은 전쟁을 피하여 거의 다 귀국함에 따라서 모든 선교 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운동도 급속하게 침체와 냉각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종식되었고, 해방의 기쁨을 맞은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운동을 재건하는 기쁨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 반으로 나뉜 난 한국 교회는 남쪽에서만 주일학교 운동 재건과 부흥의 기치를 앞세우고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947년 서울에서 주일학교 재건운동이 시작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던 조선교회학교 연합회는 1947년 1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김관식 목사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그 이듬해 1948년 3월 23일 서울 덕수 교회에서 열렸던 제2회 총회에서 명칭을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로 변경했다. 교회 교육 재건과 부흥을 위하여 일어서자마자 1950년 동족 상잔의 6·25 동란으로 인하여 재건의 기회는 무너지고 말았다.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재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는 교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봄, 가을 교사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하여 교사 강습회도 개최하였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불기 시작했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회교육 전문가를 해외 유학을 통하여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아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미국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학자들이 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부터 기독교교육학과의 설립은 우후죽순처럼 모든 교단의 신학 대학교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¹¹⁸⁾

118) 김형태가 196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석사학위를, 주선애가 1958년에 뉴욕에서 석사학위를, 문동환이 1961년에 하트포트에서 박사학위를, 김득룡이 1962년에 애즈베리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반피득과 이성화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정의숙이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강의했다. 은준관은 1968년에 태평양에서 박사학위를, 정웅섭이 1967년에 한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강단에 합류했다. 한편 총신대학교가 1973년에, 고신대학교가 1977년에, 서울신학대학교가 1978년에, 침례교신학대

1960년대는 통일공과와 시대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장로회(통합), 감리회, 성결교 같은 대표적 교단들이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재개발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한국교회는 통일공과 시대를 마감하고 교단별 교회학교 교재를 사용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교회는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변화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통일에서 분열로, 단일성에서 다원성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화두인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분열과 불일치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한국교회와 주일학교의 문제점

1. 주일학교의 재정의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와 가르침의 분리 내지 분열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교회가 교육을 외면했기에 불가피하게 태동한 주일학교는 점차 교회와 기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사실상 멀어져 간 것이다. 2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주일학교가 끼친 공헌은 가장 찬란한 것 중의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주일학교가 교회 교육을 왜곡시켜 온 장본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¹¹⁹⁾

영국의 주일학교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 '공장화', '인구 집중화'라는 일련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통하여 사회구조가 점차 붕괴되고 다시 형성되는 진통을 경험하는 와중에 시작되었다.¹²⁰⁾ 레이크스의 주일학교가 영국의 무산계급의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교육철학에 그 근거가 있었다. 그 하나는 '예방교육'에 대한 신념, 즉 어린이의 악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보고 듣는 것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감수성이 민감한 아동기에 어린이가 선에 매료될 때 비로소 인간

학교가 1978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가 1980년에, 한신대학교가 1982년에 각각 기독교교육학과를 설립했다. 그후에도 대신대, 성결신대, 안양대, 영남신대, 호남신대, 한질장신대, 호서대, 한세대로 이어져 나갔다. 기독교학과를 전공학과로 하여 그 안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교수하는 이화여대와 한남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다.

119)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25.

120) Ibid., 128.

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의 두 번째 교육철학은 주일학교야말로 성경을 근거로 한 대중 종교교육의 장(場)이었다. 당시 교회가 대중을 외면하고 거꾸로 대중은 교회를 외면함으로 보복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일학교는 자원봉사를 자원하는 뜻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글로스터의 빈민가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¹²¹⁾

교회와 교육의 분열이라는 불행한 범주에 끼어든 영국 주일학교의 모형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 양상과 이름¹²²⁾까지도 바꾸었지만, 주일학교는 여전히 혼란의 역사를 이어왔다. 영국의 주일학교는 그 구조나 성격이 처음부터 기독교 사회교육이었다.¹²³⁾ 영국의 주일학교는 관심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헌신적인 평신도들에 의하여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미국은 주일학교를 이식하여 간 이후로 오히려 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부흥회와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는 미국에서 꽃 피우고 또 열매를 맺었다.¹²⁴⁾

교회교육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도 역시 교회라는 장(場)을 외면한 장외 교육이었다. 그러나 1815년을 기점으로 '복음주의 개신교의 십자가운동'에서부터 변신을 시도하였다. 주일학교를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교회의 장내로 들어오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회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¹²⁵⁾ 이 변화의 결정적인 책임은 당시 교회가 교육을 전도의 수단

121) Ibid., 131.

122) 초기 주일학교 운동은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산수(arithmetic)의 3R로 표시되는 일반교육에 네 번째 'R'인 '종교'(religion)를 가르치는 'School of Sunday'였다. 글로체스터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의 주일은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는 개념의 'Sunday'였다. 이 이름이 'Sunday School'로 바뀌면서 교회의 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춘기 편, 한국 교회와 교육, 기독교교육 심포지엄 1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12-13.

123) 영국의 주일학교는 긍정과 부정, 적극과 소극이라는 양면적 평가가 가능하다. ① 긍정적, 적극적인 평가: 주일학교가 당시 산업 혁명후 영국사회를 착실하게 지탱해 줄 새로운 영군을 양성했으며, 어린이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인간화의 역할을 했다. ② 부정적, 소극적인 평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분화가 시작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는 가진 자의 윤리와 도덕관으로 노동자 계급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자본가 계급에게 편리하고 순응적인 노동자의 육성이라는 기능을 했다. 정웅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7), 34.

124)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133.

125) 정웅섭은 "미국의 초기 주일학교 교육은 '회심을 위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의 회심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성구 암송을 중심으로 하는 성서교육이 주일

으로 삼았던 데 있었다.¹²⁶⁾ 미국의 주일학교의 한국 문화와 사회 속으로 이식은 영국의 주일학교가 동일 문화권인 미국으로 이식된 것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문화의 공백을 절감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개신교 선교와 주일학교의 등장이 이루어졌다. 이 문화의 공백 속에 신학문 교육을 위하여 기독교 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 그 뒤를 이어 태동한 주일학교는 정동교회와 새문안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1888년에서 1905년 사이에 걸친 비공식적 주일학교 운동기라고 부를 수 있다.¹²⁷⁾

이어서 한국교회의 두 번째 주일학교 운동 기간은 1905년으로부터 1930년까지를 계수한다. 1905년에 조직된 선교연합공의회 안에 주일학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일학교는 공식적인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 기간의 특징은 3·1 운동의 좌절, 그리고 교육구국 운동으로 민족 회복의 꿈을 심어오던 시대적 절규와의 깊은 연관 속에 태어난 기독교교육운동이라는 점이었다.

세 번째 기간은 1930년으로부터 1945년 사이를 계수한다. 1922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 종로 성서공회에서 조직된 조선 주일학교연합회는 주일학교의 황금기의 상징일뿐 아니라, 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이 땅에 심기 시작한 의미 있는 기구로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제 탄압이라는 변수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장로회의 주도권에 반발하는 감리교회의 분리선언에서(1928) 연합운동은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를 중심으로 이미 만국통일공과의 번역과 함께 그룹 계단공과가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 집필되어 발행할 정도로 수준 높은 전문성을 과시하기도 했다.¹²⁸⁾ 이 기간은 미국의 주일학교와 같이 신앙적, 전도적인 회심 운동으로서의 주일학교가 교회학교라는 기구로 공식화되었던 과정을 여과 없이 답습했다. 아울러 그것은 교회의 존재론적 표현으로서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교육 사이의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학교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한다. 정웅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39.

126) 이 변화의 결정은 주일학교 연합회 조직을 하나로 묶어 미국주일학교연합회(American Sunday School Convention)라는 단일조직으로 결성한 사건이다. ‘미시시피 계곡전도’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일학교연합회는 시민전쟁 때까지 약 300개소의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여세를 몰아 1872년 미국에서는 국제주일학교대회(International Sunday School Convention)가 결성되었으며, 같은 해 만국 통일공과(International Uniform Lesson)가 출판되었다.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134-135.

127) Ibid., 158.

128) Ibid., 140.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의 네 번째 기간은 1945년으로부터 오늘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이 기간의 교회교육은 8-15 해방에서부터 6-25 한국 동란, 4-19 학생 민주화 혁명, 5-16 군사 쿠데타, 유신 헌법, 그리고 제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성된 복합적인 상황과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혼돈 상황과 경제 성장 우선주의로 인한 산업화는 기독교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내면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데 있었다. 8-15해방 이후 한국교회에 팽배한 교회 분열, 교파 및 개교회주의, 그리고 외형적 성장에 병적인 치중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무관심 속에 고사되고 말았다. 여기서 주일학교가 되었든, 기독교 학교의 신앙 교육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이 되었던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꽃을 만개해야 할 장(場)은 떨어져 버린 꽃잎으로 어지럽게 된 것과 같다.¹²⁹⁾

여기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¹³⁰⁾ 주일학교를 하나의 자율적인 신앙 공동체로 정의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주일학교는 그 안에 창조성과 대안과 프로그램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¹³¹⁾

주일학교를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로 정의하게 되면 '주일학교 자체가 교회 안의 또 하나의 교회'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다. 비록 주일학교가 성인들의 도움과 교회의 지원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린이, 젊은이들의 신앙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본질적 신앙 공동체인 것이다. 학교를 신앙 공동체로서 규정하면, 교

129) Ibid., 141.

130) 여기서 주일학교 교육 200년을 결산하면서 그의 글을 맺는 정웅섭의 뼈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회교육이 소외된 인간을 회복하고 그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나가서는 사회를 갱신하는 힘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 권력층이나 특권층의 이용물이 되어 압박의 수단이 되는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교회학교의 교육이 인간의 해방 내지 참 인간성을 촉진하는 교육이 되는가 하는 상이점은 바로 그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 가운데 어린이나 젊은이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적 신앙과 사랑과 희망의 행태가 있는가 또는 역사와 세계의 향방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신앙적 감각이 있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받게 된다....교회학교의 교육은 그 미완성의 교육활동이라는 신비와 매력으로 특색지어진다. 그 교육이상과 계획이 충분히 완전히 채워질 날은 아마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끊임없이 걸음을 계속할 것이다. 교회학교의 교육은 "20세기 초기의 대영제국처럼 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정웅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52-53.

131)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189.

육 구조와 과정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의 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선 신앙인들의 관계로 변화된다. 이 변화는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 지식을 학습하는 학생이라는 피동적 위치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응답하는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 신앙 공동체,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하는 식구가 된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학생들의 동반자가 된다.¹³²⁾

2.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100년, 그 반성과 과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100년의 발자취를 총괄하여 평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첫째,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의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형성'을 위함이었다. 개신교 선교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교육의 기능을 주로 개인의 회심과 교세 확산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둘째, 교회교육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경 내용의 전달'이었다고 하겠다. 한국교회는 계단공과를 제작, 사용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였다. '내용전달 중심'으로 교육방향이 고착된 한국교회의 교육풍토가 '경험중심'의 교육내용을 수용하고, 소화해 낼 능력이 전무했다. 이 현상은 현재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교회교육의 구조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학교교실식 교육형태 속에서 일방적 주입식 수업으로 진행한 '학교-교수 형태'였다. 학교교실식 교육구조는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더 발전을 할 수 없다. 전달 위주의 학습구조가 안고 있는 약점은 상호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을 약화시킴으로 교육의 내면화 내지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교육구조는 교회교육의 특성인 공동체를 지양할 수 없다.

넷째, 교회교육의 행정체계는 '기계적 조직' 체제나, 혹은 그 반대 '인간관계적 조직' 체제로 요약이 가능하다. 교육행정 체계가 기계적이라는 말은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이며, 명령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의미이다.¹³³⁾ 그 결과 권한과 책임의 분여 및 분

132) Ibid., 191.

133) 한국 교회학교 교육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1980년 1월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에 보고서를 내놓은 연구팀은 정웅섭 교수(한신대), 오인택 교수(당시 장신대), 정우현 교수(고려대)였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⁴⁾

이제 선교 제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교회교육의 과제를 살펴 보려고 한다. 첫째, '교회형성'에서부터 '기독교 신앙과 문화형성의 교육'으로 그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하여도 인간상실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될 것이다. 레이크스를 위시하여 주일학교의 선구자들은 그 시대의 희생물이었던 어린이들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한국교회는 망각하면 안 된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의 바탕에 깔려있는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진지하게 응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 공동체적 삶 속에서 가치와 신앙을 나눔으로 기독교적 문화를 형성하고 확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둘째, '성경내용의 전달'에서부터 '성경적 삶과 만남'으로 그 내용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사는 교유현장에서 성경의 메시지와 체험적 삶을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사 자신이 먼저 말씀과 만남을 체험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교수 형태'에서부터 '신앙 공동체(삶의 교류 형태)'로 구조적인 갱신을 해야 한다. 학교식 교실 수업을 흉내 낼 것이 아니라 '탈학교화'하여야 한다. 신앙은 교리의 주입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에 근거한 결단을 가지고 교사인 '나'(Ich)와 학습자인 '너'(Du)가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형성되고, 계승되어 나간다.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증언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의 성원인 어린이, 젊은이, 그리고 성인들이 함께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육이 요청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소그룹 활동으로 구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으며, 이들은 44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10개 교단의 500여 교회(각기 5매씩 발송)에 발송-수집한 후 분석을 거쳐 정리하여 "한국 교회학교 교육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로 펴냈다)를 따르면, "교회학교의 교장직은 76.1퍼센트가 목사 및 전도사인 성직자로 보임되고, 교회학교 부장직도 단순히 당회원이라는 이유하나로 (교육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장로가 30.7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대교회의 경우, 무려 84.8퍼센트나 된다). 교회학교의 행정책임자는 75퍼센트가 목사여서 교회행정의 중앙집권적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웅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93.

134) Ibid., 90-93.

다.

넷째, '기계적 조직' 내지 '인간관계적 조직' 체제를 '유기적 구조'로 바꾸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레이크스의 초기 주일학교 시절부터 자원 봉사자인 평신도에 의하여 유지 발전되어 온 교육운동이었다.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주체가 되는 운동은 조직화나 제도화와 친숙해 지거나 조화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 유기체적 구조의 특징은 리더십에 있다. 전통적, 권위적, 인습적 옛 구조를 벗어나 버리고, 수용적, 대화적, 창조적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¹³⁵⁾

결국 한국 교회교육 100년의 발자취에서 드러냈던 문제, 즉 어린이와 젊은이가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인간 소외와 상실이 회복되는 자리로 탈바꿈을 할 때 어린이와 젊은이가 어른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3. 한국교회와 어린이 전도

가. 교회와 어린이 선교 단체의 관계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100년의 발자취는 '교회형성'이라는 목적 아래, '학교-교수 형태'라는 구조 속에서, '기계적 조직'이라는 행정 체계를 통하여, '성경 내용의 전달'에 매달렸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주일학교와 함께 전문적인 어린이 전도 선교 단체를 사용하셨다.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교회와 선교기관을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업을 위한 양대 기구로 보았다. 그는 직물의 짜임새(fabric)를 유비로 들어 이 구조 관계를 설명한다. 직물의 날(warp)은 수직적 방향이며, 씨(woof)는 수평적인 방향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실이 서로 짜임에 따라서 천이 되는 것이다. 직조 기술에 따라서 한 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잘 보일는지 모르나 이 두 방향의 실은 다 절대 불가결하다.¹³⁶⁾ 윈터는 이 수직적 구조를 '모달리티'(modality)라 부르고, 수평적 구조를 '소달리티'(sodality)라 불렀다. 첫째 구조 '모달리티'는 사도행전의 신약교회이며,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 바울의 전도단은 자발적으로

135) Ibid., 94-99.

136) Marlin L. Nelson, 오늘의 아시아 선교 (The How and Why of Third World Missions: An Asian Case Study), 윤두혁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162.

교회회원이 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다. 안디옥 교회와 별개의 구조였으나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구속적 구조 가운데 두 번째 곧 '소달리티'였던 셈이다.¹³⁷⁾

'모달리티'는 성(性)과 연령의 구별이 없는 조직된 교회를 말하며, '소달리티'는 수평적 구조에 연령과 성의 제한이 뒤따르는 조직체로서 선교회를 지칭하게 된다.¹³⁸⁾ '모달리티'로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경화현상은 '소달리티'인 어린이 전문 선교 단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 즉, 기독교 신앙과 문화 형성의 교육을 향하여, 신앙 공동체와 삶의 교류를 통해서 성경적 삶과 만날 수 있는 유기적 구조로 탈바꿈 할 수 있다.¹³⁹⁾ 한국교회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다원화된 21세기에 걸맞는 어린이와 젊은이 전도와 양육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제공받고, 기술과 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린이 전문 선교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¹⁴⁰⁾ 이제 모달리티로서 한국교회는 소달리티로서 여러 전문적인 어린이 선교단체와 역동적인 협력 관계를 통하여 동반자적인 자세로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 교육을 하여 이 땅에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

나. 어린이 선교 단체의 사역 분석

먼저 한국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of Korea)는 1937년 미국에서 Jesse Irvin Overholtzer에 창립되어 현재 세계 145개국에서 어린이 선교를 전문

137) Ibid., 165.

138) Ibid., 166.

139) 박규현, "어린이 전도와 교회 성장" (Church Growth Through Child Evangelism) (석사 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7), 62-67.

140) ① 한국어린이 전도협회(대표 민운홍)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4-2, 전화: (02) 3401-8291, 팩스: (02) 3401-6004 홈페이지: www.cefkorea.org. ② 파이디온 선교회(대표 양승헌)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5-10 동림빌딩, 전화: (02) 522-0872, 팩스: (02) 522-0875 홈페이지: www.paidion.org. ③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대표 김종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7-10, 전화: (02) 929-0420, 팩스: (02) 929-3462, 홈페이지: www.kcem.or.kr. ④ 한국 성서 유니온 선교회(총무 박명섭)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4 선교회관 2층, 전화: (02) 2202-0091, 팩스: (02) 2202-0095, 홈페이지: www.su.or.kr. ⑤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회장 방지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4-24 글로리 빌딩 3층, 전화: (02) 517-3927~8, 팩스: (02) 517-3929, 홈페이지 www.lydia.or.kr. ⑥ 알리온 어린이 선교 (대표 김청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23-3, 전화: (02) 562-4320, 팩스: (02) 556-5601, 홈페이지 <http://myhome.naver.com/dayohkim/armioninfo.htm>.

으로 하는 선교단체의 한국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세계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라는 표어 아래 그리스도 밖에 잃어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국제적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적이며 성격에 있어서는 초 교파적이다. 한 해 100만 명의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 700명의 사역자를 양성하며 70개 지회를 설립하고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CEF의 비전을 가지고 일한다. 그들의 중점적인 사역은 새 소식반(Good News Club) 운영, 3(5)일 클럽(5-Day Club)이다. 두 가지 핵심 사역에 이어서 어린이 캠프, 파티 전도, 어린이 꽃잔치, 학교 전도, 공원 전도, 어린이 부흥회, 통신 학교, 전화전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새 소식반'을 어린이 Cell목회라고 정의하면서 150개국에서 이미 실시하여 주일학교 부흥의 효과를 누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새 소식반'을 통하여 어린이 전도와 주일학교 부흥을 맞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이 어린이 전도는 매주 1회 일정한 시간에 이웃의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 가정에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방법으로 전도를 받은 어린이가 결신하여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효과적인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새 소식반'보다 조금 더 심화된 전도 방법은 '3(5)일 클럽'의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3일(5일)동안 동네 어린이들을 골목이나 놀이터에 모아 매일 1시간씩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전도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이 '3(5)일 클럽'은 훈련을 마친 교사들을 3-4명씩조를 이루어서 각자 교회 근방에 장소를 정하여 하루에 한 시간씩 전도하여 3일째 되는 날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어린이 전도의 중심은 '어린이 캠프'로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야외 캠프장에 모아 자연과 함께 단체 속에서 집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실천신앙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캠프의 특징은 '놀라운 영적 체험',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육', '사교성과 리더십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의 어린이 전도의 접근 방법은 어린이의 삶의 현장, 곧 가

정, 놀이터, 공원을 찾아간다는 것이 전략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어린이에게 단시간에 복음을 전하여 결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어린이 전도와 양육의 신학적인 고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어린이가 결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가 가정에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해 나오고 있다. 파이디온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하나님은 파이디온을 25년 전에 준비하셨다. 지난 25년 동안 파이디온은 뛰어왔다. 주일학교가 죽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서도록 뛰어 왔고 또 될 것이다. 주일학교 지도자를 세우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말씀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교재를 만들어주고, 부모들을 훈련하고, 아이들이 읽을 신앙 서적들을 만들어주고, 이들 뗏속 깊이 진리를 새겨 넣을 노래를 만들어주고, 어린이 전도자를 훈련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해 왔다. 또 무슨 사역을 하든, 사역의 여건과 지역이 얼마나 확장되건 상관없이 파이디온 선교회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 왔고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파이디온의 사명 선언(Mission Statement)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운다.”

사명 선언에서 확실하게 천명한 것처럼 파이디온 선교회는 오직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5대 사역, 즉 사역자 훈련, 선교 사역, 문서 출판 사역, 문화 창달 사역, 전도 사역을 해 오고 있다. 파이디온 선교회가 주일학교 교재 ‘예수마당 성경공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6가지 집필철학을 고수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첫째는 적용성이다. 공과는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활동성이다. 진정한 배움은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배운다. 셋째, 핵심성이다.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을 정확히 이끌어내고, 그것을 분명하고 간결한 포인트로 바꾸어 어린이의 가슴에 새기도록 한다. 넷째, 흥미성이다. 어린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다섯째 협동성이다. 함께 더불어 배우는 공동체 문화를 어

린이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협동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여섯째, 창의성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어린이가 늘 신선함을 느끼도록 창조적인 가르침의 방법들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 창달 사역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작업,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문화라는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역’을 수행하려는 각오와 자세는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단체도 역시 어린이의 삶이 이어지는 두 축, 곧 가정과 학교라는 장을 간과하였으며, 성경읽기를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이의 영적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옥에 티와 같다.

셋째,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Korea Children Education Mission)는 ‘주일학교를 살리시다’라는 표어 아래 어린이 전문 사역자 및 교육담당교역자 특별세미나를 통해서 점점 침몰해가는 주일학교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4학기제로 운영하는 사역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강사 자격을 부여하고, 어린이 청소년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화요 교사 무료 강습회, 교육 지도자 특별 세미나, 신년 교사 특별 강습회, 어린이 성경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출판 사역을 통하여 월간지 어린이 교육과 표준 공과 발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 성서유니온 선교회(Korea Scripture Union)는 1867년 영국에서 어린이 전도로 시작하여, 현재 전세계 130여 개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복음을 알게 하며, 매일성경(성경묵상교재)을 보급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선교단체이다. 성서유니온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철학은 ‘교회를 돕는 동반자적 자세’이다. 성경묵상(QT) 훈련, 교회학교 교사 훈련, 개인묵상 훈련과정, 그룹 인도자 훈련과정, 어린이, 청소년 전도 및 학교사역, 캠프지도자 훈련, 기독교 서적 출판과 보급 사역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돕고 있다.

‘성경묵상훈련’은 교회학교 교사 훈련과정, 어린이 큐티학교(주말, 방학), 청소년 큐티학교(주말, 방학), 청년대학생을 위한 훈련, 개인묵상을 위한 훈련과정(LTC), 그룹 인도자를 위한 훈련과정(LTC), 묵상이해를 위한 강좌로 구성되었다. ‘묵상그룹인도’ 사역은 묵상그룹 인도, 어린이 묵상그룹인도, 청소년 묵상그룹인도, SUIS(학교사역) 묵상그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사역’은 어린이 징검다리 캠프, 어린이 큐티

캠프, 청소년 등잔불캠프, 청소년 큐티캠프, 가족캠프, 전도캠프(래프팅, 트래킹, 문화탐방)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사역'에서 부부묵상, 부부대화, 자녀교육을 도와주고 있으며, 북한(매일성경 보급), 중국(매일성경 보급)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성서유니온(Scripture Union)의 본래 사역철학을 본받아 조직적으로 어린이와 가정을 세워주고, 학원사역과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성인을 위한 '성경읽기' 사역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섯째,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Lydia Children's Mission Society)는 전국의 여성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장차 이 땅의 큰나무들이 될 어린 생명들(태중아기부터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주요활동은 월례회 예배, 루디아 교사 중보기도 모임, 지역별 어머니 중보기도 모임, 여름-겨울 전국 초등학교 기독교사 모임, '말씀과 함께'와 그림성경 보내기 자선 음악회, '말씀과 함께'와 그림성경 보내기 자선 바자회, 예수님 생일잔치를 통해서 전국 400만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섯째, 알리온 어린이 선교회(Arnion Children's Mission)는 2000년대 지구촌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와 같은 때에 1970년대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부흥을 이어가도록 한국 교회학교를 돕고, 소외 받는 어린이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 4월 7일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선교회는 어린이 선교, 교육, 복지 단체로 사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교육대학교와 신학대학교, 유아 및 아동 복지대학에 동아리와 국내외 지역에는 지부를 두는 한편, '기독교사연합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선교회의 주요 활동은 '선교교사'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대학 재학 중 훈련을 받고 졸업 후 교사 임용과 함께 초등학교에 파송되어 학급 복음화와 예수 제자화 사역을 하며, '교회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회학교의 교육목회 파트너로 어린이 선교, 교육, 인권, 문화 운동에 헌신케 한다. 또한 지방별 어린이, 교사 연합 기도성회 개최를 통하여 어린이 기도 운동을 추진한다. 통일 후에는 북한 지역에서도 '어린이 연합 기도성회'를 갖는다. 또한 어린이 전도를 통한 교회개혁, 교회학교 성장을 돕는다. 더불어 다른 나라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해외 장, 단기 선교사를 찾아 훈련 및 파송하

며 북한 어린이 선교찬양중보기도 축제 개최, 교회학교 어린이 복지(방과후 프로그램) 정보 제공, 어린이집 운영,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및 결손가정 자녀들을 돌보기, 경기 시흥 소재 정신지체 아동들 수용 시설 '어린이의 집' 지원 사역을 한다. 또한 어린이 건강한 문화 만들기(어린이 성 지키기 서약식), 어린이 기도군대 캠프, 새천년 교회학교 성장세미나 개최의 사역을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앞으로 교회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독교 신앙과 문화형성의 교육을 목적으로 삼고, 성경적 삶과의 만남을 내용으로 하여, 신앙 공동체와 삶의 교류 형태라는 구조 속에서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낱줄에 해당하는 교회를 살펴보았고 그 동반자로서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씨줄에 해당하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단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만나도록 돕는 일과 가정과 어린이가 교회와 사회의 최소 단위로서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 훈련을 위한 어린이 캠프와 가족 캠프를 개최하고 더불어 어린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 안에서 소그룹 활동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개의 축과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자와 불신자 가정의 어린이를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는 또 하나의 축을 균형과 조화 있게 추진하는 하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때에 어린이 교육과 전도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는 어린이 캠프와 전도에 있어서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어린이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와 성장의 열매를 맺었음이 입증되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루디아 선교회의 전도전략과 공동체 훈련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5 장

루디아 선교회 공동체 훈련의 배경

본 장에서는 루디아 선교회의 공동체 훈련의 기초가 되는 사역 방침과 전략들을 검토하여 루디아 선교회가 어린이 사역과 가정 사역에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어린이 전도와 양육의 장(場)이 가정이며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임을 확증할 것이다.

제 1 절 루디아 선교회 약사

루디아 선교회는 고(故) 김진홍 목사의 자녀와 친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그 감사하는 마음이 모여 국내와 국외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첫 모임을 1976년 12월 영등포구 당산동 감남맨션 14동 205호 김덕성 집사 가정에서 시작했다. 매월 1회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군 복음화를 위하여 문서 선교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학급 문교로 기증한 성경만화로 출발한 루디아 선교회의 어린이 전도 사역은 8개 항목인데 그림성경 사역,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 모임, 어머니 기도회, 기독교 교사 모임, 어린이 캠프 사역, 낙도 전도사역, 성경읽기 사역('말씀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 대학, 출판 사역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1. 그림 성경 사역

1980년 8월 30일 중앙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2학년에 성경 만화 8권 기증을 했다. 어린이들이 성경 만화를 재미있게 읽는다는 소식과 함께 서로 먼저 읽으려고 자기 책

상에 책을 가져다 놓고 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담임교사로부터 전해 들었다. 루디아 선교회는 '전국 6,450개 초등학교 5,640,000 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캠페인을 시작했다. 성경 만화는 중대부속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반포 초등학교, 도곡교회(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동 135번지)에 보내졌다. 도곡 교회의 성경 만화 10권은 겹장이 다 닳아 헤어졌고 읽으려는 학생들은 줄을 잇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성경 만화를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자는 문서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구성초등학교의 한 여학생이 반포초등학교 어린이 회장에게 헌책이라도 보내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보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반포 초등학교에서 성경 만화 한 묶음을 보냈다. 구성 초등학교 여 선생님 한 분이 전교생이 예수님을 믿고, 마을에 교회가 세워 지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하여 성경 만화가 이 초등학교에서 전 초등학교로 퍼져나게 되었다. 이후 성경 만화는 부산 당감 초등학교와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재한 지산 중학교로 퍼져 나갔다.

1982년 8월 고일선(생명의 말씀사 대표이사)은 성경 만화 전도 소식을 듣고 낙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전도를 위하여 성경 만화를 기증해 보내주셨다. 1983년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와 부산 지역 초등학교로 확대되어 나갔다. 1984년에는 총 140여 세트를 초등학교와 낙도에 있는 교회에 기증하였다. 1985년에는 그림 성경 91세트를 전달하였고, 1986년에는 127세트의 그림 성경을 초등학교와 낙도에 보냈다. 또한 그림 성경을 조직적으로 보내되 우선 강원도 지역 6,000여 학급에 그림 성경을 기증하기 위하여 '그림성경 보내기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기금을 모금하였다. 자선 음악회를 통하여 모금된 돈으로 1987년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등 3개 군에 700 세트의 그림 성경을 기증하였다.

1989년 5월 두 번째 자선음악회를 소망교회 선교 교육관에서 열었다. 바리톤 이공진, 테너 지양길, 메조 소프라노 김학남, 테너 박인수 외에 김남윤의 바이올린 독주와 엘칸토 예술 중창단, 소리울 트리오, 그리고 소망교회의 칸투스 합창단이 연주하는 가운데 1,0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대학생 선교회(CCC) 춘천지부의 도움을 얻어 배포기로 했다. 또한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그림성경을 전달하기로 했다. 낙도지역은 옥도 교회 박영걸 목사의 도움을

얼어 진도군에 있는 섬부터 전달기로 했다. 1989년 10월 9일 대학생 선교회 춘천지부 이갑용 대표간사와 협의를 거쳐, 춘천지부 Home Coming Day 행사에서 150세트의 그림성경을 전달했다. 이후 CCC 춘천 지부에서 그림성경 전달식을 마치고 CCC 출신 기독교사들이 근무하는 강원도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했다.

2.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 모임: 징검다리

1980년 중앙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2학년 한 학급에 학급문고로 기증했던 성경 만화 8권은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역사했다. 루디아 선교회의 그림성경을 통하여 학교 안에서 어린이 전도라는 큰 사역 분야를 일구어 냈으며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성경만화를 읽은 다음 성경을 더 알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 어린이들의 편지가 계기가 되어 한국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징검다리 신약편 6권을 통신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생명의 말씀사)을 성경공부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1981년 12월 5일 어린이 성경 공부 모임(징검다리) 창립 예배를 반포 침례교회에서 드렸다. 제1부 예배에 이어 제2부에서는 유재선(성서 유니온 출판부장)의 지도로 징검다리 성경공부, 이어서 인형극, 동화, 찬송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포 징검다리' 모임은 1982년 1월 9일 반포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어린이 21명이 참석하여 한익수, 한철형, 박미혜 세 분 선생님의 지도로 '징검다리' 교재를 사용하여 성경 공부를 했다.

한편 선교회는 1982년 1월 부산에서 상경한 김 미자 선생님을 만나서 '징검다리' 성경 공부를 소개했다. 같은 해 8월 17일 부산 당감 초등학교, 당평 초등학교, 괘법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 전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부산 지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자 선생(부산 당감 초등학교)이 부산 지역에서 첫 '징검다리' 어린이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매월 한번씩 교회당을 빌려서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징검다리' 어린이 성경 공부는 선교회 회원들의 가정에서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편 1983년 1월 '징검다리' 지도자를 위하여 제1회 수련회를 열었다. 윤 종하 총

무(한국 성서 유니온)가 ‘어린이 전도의 성경적인 근거와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같은 해 상도동에서 한 가정의 ‘징검다리’ 어린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봉천동의 한 가정은 어린이들이 25명이나 참석했다.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은 어린이 캠프와 낙도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열기가 식어졌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함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어머니 기도회, 기독교 교사 모임

1981년 8월 22일 신서영 교사(반포초등학교)와 6명의 교사들(천호, 중대부속 초등학교)이 토의했던 어린이 전도의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즉 ‘초등학교 어린이 전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과 어머니들의 기도회를 운영한다’는 원리가 조금 더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 전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사들을 위하여 어머니기도회를 시작했다. 이후 1982년 3월 어머니 기도회가 확대되었고 반포 중대부속 초등학교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기도회를 가졌고 봉천 초등학교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회를 가졌으며 신암 초등학교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기도회를 가졌다.

부산지역 기독교 교사 모임은 김미자 교사(당감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이 성기, 서정희 교사와 함께 학교 안에서 그림 성경, 문서선교와 징검다리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했다. 부산 시내로 전근간 안보혜 교사(괘법 초등학교)과 울산시로 전근간 류금주 교사와 김진희 교사도 계속하여 김미자 교사와 연락하면서 어린이를 전도하게 되었다.

전남 진도군 진도군 지산면에 소재 한 지산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임난영 교사는 1,400여 명의 재학생 가운데 200여 명의 학생들로 기독교 학생회를 조직하여 매주 한 시간씩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1983년 4월 25일 진도군 인지리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임난영 교사와 함께 지산 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어머니 기도 모임은 선교회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으로 어린이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기도회와 기독교 교사 모임의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4. 어린이 캠프 사역

1982년 2월 첫 월요기도회는 한국 기독교 수양관 총무 김춘택을 초대하여 새 생명 성경 캠프'의 사역 소개를 듣고, 이 사업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징검다리'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공동체 훈련을 위하여 한국 성서 유니온과 협력하여 어린이 캠프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다. 1983년 첫 여름 어린이 캠프가 열렸는데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성서 유니온과 협력하여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 소재 상판분교에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전도 캠프(제1회 징검다리 캠프)가 개최되었다.

1984년 겨울 어린이 캠프는 1984년 1월 17일-20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고양군 고양리 소재 유스호스텔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서 유니온과 협력하여 제2회 어린이 전도 캠프를 개최했다. 1985년 어린이 캠프는 루디아 선교회가 독자적으로 어린이 캠프를 주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85년 8월 6일-10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했다. 1986년 어린이 캠프는 1986년 1월 남한강 종합 수련원(경기도 양평)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까지의 남, 여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었으며 1988년 겨울 어린이 캠프는 1988년 1월 12일-16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고양 유스호스텔에서 39명의 어린이와 15명의 교사들이 88년 겨울 루디아 어린이 캠프를 가졌다. 양용의 전도사가 추천한 주문진 교회의 어린이 3명을 함께 캠프에 초대하였다. 1988년 여름 어린이 캠프는 8월 9일-13일까지 4박5일간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에서 초등학교 3-6학년 남녀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했다. 1989년 겨울 어린이 캠프는 1989년 1월 16일-20일까지 루디아 어린이 캠프가 4박 5일 동안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어린이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용의가 하는 농촌 전도 지역인 견불리, 삼교리, 낙풍리 세 마을의 어린이들 40여명이 이 캠프에 참석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서울 지역 9명, 주문진 9명, 강릉 5명, 그리고 교회가 없는 마을인 삼교리, 견불리, 그리고 낙풍리에서 18명 모두 41명이었다. 1989년 여름 어린이 캠프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북동리 소재 북동 초등학교에서 강릉 지역과 서울 지역 어린이 49명이 모여 루디아 여름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 8명의 캠프 리더들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6명의 스태프들이 도와주었다. 서울에서 13명, 안인에서 8명, 주문진에서 7명, 옥계에서 5명, 송정에서 5명, 견불리에서 4명, 강릉에서 3명, 보광리에서 3명, 동해에서 1명, 모두 36명의 어린이들이 도착하여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어린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교육과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5. 낙도 전도 사역

전남 고흥군 벌교읍 앞 바다에는 장도와 해도 두 섬이 있다. 장도 초등학교 해도분교에서 29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낙도 전도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1982년 첫 번째 낙도 전도(해도)를 위해 8월 5일부터 해도분교에서 2박 3일간 어린이 전도 집회를 예정하고 루디아 선교회는 기도를 시작했다. 첫 번째 낙도 전도에 참가했던 김종화(새순교회 목사)는 낙도 전도를 다녀온 소감을 다음과 피력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7월 12일부터 며칠간 영종도 기도원에서 나기욱, 김성수, 박성수, 이재천, 김덕천, 박삼열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기도를 겸한 작은 집회를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로 친교를 나눴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이것이 이번 해도를 방문하게 된 원동력과 활력소가 된 것이라는 점을 비로소 느끼게 됐고 주님의 놀라운 진행 솜씨에 감격했다. 내가 가야 한다면 기도로 준비해야만 했다. 우선 두 사람이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다. 한결 마음도 정돈되고 자신감조차 들기도 했고 물론 거절할 마음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다."

1983년 낙도 전도는 8월 16일-20일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해도와 진도군의 인지에서리에서 있었다. 해도에는 박성수, 이경환, 나기욱, 김덕천이, 진도 인지에서리에는 김종화, 한철형, 김성수, 김용재, 진수연 등 9명이 수고를 했다. 1984년 낙도 전도(둔병도와 해도)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박성수, 한철형, 진수연이 둔병도(전남 여천군 화정면 둔병리 372번지)를 방문하여 전도했다. 둔병도는 36호, 200명 정도 주민들이 사는 작은 섬이다. 둔병도 초등학교 분교는 신상호, 박미순 부부 교사가 어린이 약 30여명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박미순이 전도와 결신한 분들을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한편 오래 전에 이미 둔병도에 성경 만화를 보냈는데 선교회는 성경 만화를 읽고 편지를 보내온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후 198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경환, 김덕천이 해도를 방문하였다.

1985년 낙도전도는 덕우도에서 있었는데 ‘태풍과 풍랑을 어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덕우도를 다녀와서 박 병은 목사님이 기고한 전도후기이다. “덕우도는 약 70호에 460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교회가 없고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섬입니다. 금일도라는 큰 섬(인구 20000명) 앞에는 덕우도뿐만 아니라 다랑도, 우도, 섭도, 소다랑도등 교회가 없는 섬이 4개가 더 있습니다. 다랑도는 30여호, 고작해야 10여호씩되는 작은 섬들. 이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덕우도와 다랑도 두 섬으로 떠날 대원들을 나누고 짐을 다시 꾸린 다음 우리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바람은 거세지고 빗소리는 더욱 커가기만 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잠을 청했다. 선창을 벗어나기까지 바다는 잔잔했다. 얼마쯤 가고 나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집채같은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몰려왔다. 전후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작은 배 그야말로 문자로만 알았던 일엽편주다. 일행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선장의 얼굴조차 굳어 있었다. 30년 뱃사람 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침에 태풍 경보를 못 들었던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났다. 배는 덕우도 선창에 가까스로 대었고 다랑도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말에 일행 12명은 모두 덕우도에 내렸다. 마침 덕우도 대부분 남자들은 선창이 빈약해서 완도로 배를 대피하러 나갔고 마을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귀를 막아 태풍경보를 듣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 일행은 풍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미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덕우도 남자들을 쫓아 내셨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처지에서 말씀만을 전하게 하셨다. 덕우도에서 보낸 첫날 저녁,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복음을 소개하자, 한 청년은 “지금까지 육지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라는 말은 계속해서 전도대원들의 컷가를 울렸다.

1986년 낙도 전도는 우도와 다랑도에 있었다. 다음은 낙도 전도를 앞두고 루디

아 소식에 실린 기도 요청이다. “전남 완도군 금일읍은 인구 20,000여명이 살고 있는 비교적 큰 섬입니다. 월송리라는 마을이 있고 우리의 낙도전도를 자상하게 뒷바라지해 주시는 이 강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금일 영락 교회가 있습니다. 월송리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월송리를 기점으로 하여 30분내지 2시간 거리에 여러 섬들, 곧 황제도 15가구, 장도 20가구, 원도 20가구, 섭도 7가구, 부도 15가구, 다랑도 23가구, 우도 9가구 합계 109가구가 7개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섬들은 교회를 세우기에는 너무 작은 섬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 장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낙도 전도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박병은 목사님과 이경환 전도사가 해도에서 시행하였다. 해도는 총가구 수 23가구에 노년 7명, 장년 55명, 청년 11명, 고교생 13명, 중학생 14명, 국교생 20명, 유지 5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 또한 1987년 11월 11일-15일 전남 완도군 다랑도에 오레문 선교사 부부(OMF), 심재을, 장정현, 송호영, 이원자, 오해령(이상 강릉), 이경환(인천 송월교회), 하의진 선교사 부부(OMF), 박병은 목사 부부(안양 성림 교회), 정인성, 김성도가 낙도 전도를 다녀왔다.

1989년 8월 8일부터 11일에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에서 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루디아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 옥도 교회 박영걸 목사는 4개 섬에서 50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할 계획을 세웠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2개 섬에서 26명의 어린이들만 참가했다. 옥도에서 22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하조도에서 4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옥도 어린이 캠프에서 이진선, 김태운, 최승일, 최효선 4명의 형제와 박향숙, 원찬숙 2명의 자매가 캠프 리더로 수고했다. 김시돈 간사가 대장으로, 김덕천 총무가 캠프 목사로 말씀을 전했다. 옥도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김동교, 김근향, 김육호, 김운숙 4명의 고등학생들이 스텝으로 수고하면서 캠프리더 훈련을 받았다. 이 4명의 고등학생들은 현재 조도 실업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이 무렵 한국 낙도 복음 선교회와 다른 여러 유사한 선교단체가 낙도 전도에만 전념하므로 루디아 선교회는 낙도 전도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6. 성경읽기 사역(말씀과 함께)

그럼 성경 사역은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으로,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은 어린이 캠프와 낙도 전도로, 어린이 캠프와 낙도 전도는 성경읽기 사역으로 발전되었다.

7. 주일학교 교사 대학

1989년 루디아 주일학교 교사대학 첫 강좌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지역의 일곱 교회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학교의 역할과 목적,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 교사의 영적 생활(QT), 예배의 진행과 프로그램, 공과준비법, 그리고 QT 실습 등 모두 10시간의 강의가 있었다. 참석했던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주간 성경공부를 통해서 QT 훈련과 공과준비를 위한 성경공부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두 번째 주일학교 교사대학은 1989년 6월 1일과 2일, 9일과 11일 수원 양무리 교회에서 총무 김 덕천 목사의 지도로 주일학교 교사대학을 가졌다. 양무리 교회와 사명의 교회 두 주일학교 교사 18명이 참석하여 예배와 분반공부 지도요령, 공과 준비법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워크샵을 가졌다.

8. 출판사역

먼저 가정 예배 지침서인데 해롤드 쉘라(Harold Sala)가 지은 가정예배 지침서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인쇄를 끝마쳤다. 또한 참말이에요! (It's True and Everybody Ought to Know It!)가 세계 가정 성경 연맹(World Home Bible League)에서 보내준 현금으로 12월에 출판되었다. 1987년 6월 10일자 루디아 소식에서는 '참말이에요!'의 저자 브노아 할머니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저자 브노아(Miss Claire Lise de Benoit)는 스위스 성서유니온의 어린이 전도 담당 간사이며, 70세 고령임에도 어린이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어린이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았다. 브노아의 할머니가 스위스의 성서 유니온을 설립하실 때 영국 성서 유니온

본부에 편지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스위스 성서 유니온을 위해 평생 일했다.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참말이에요를 발행하도록 필름과 판권을 허락하시고 나의 친구 작은 당나귀와 나의 목자, 가르칩시다!(참말이에요 교사용), 알기를 원해요(참말이에요 어린이 연습문제)를 낼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서 도와주셨다.

세계 가정 성경 연맹의 재정 지원으로 어린이 성경공부 교재 사랑의 이야기를 출판하였다. 어린이 큐티 잡지로 말씀과 함께를 1987년 200부로 출발한 '말씀과 함께'의 발행부수가 창간 두 돌을 맞으면서 2,000부로 인쇄부수가 늘어났다. 도서출판 '성문사'로 등록되었던 출판사 명칭은 5월 실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루디아 선교회 출판부'로 명칭변경 신청, 1989년 5월 31일 서초구청으로부터 명칭변경 허가를 받았다. 1989년 7월 22일 문공부로부터 어린이 성경읽기(QT)교재 '말씀과 함께'의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회장인 방지일을 발행인으로 하여, 총무 김덕천이편집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좋은 말씀' 세 번째 책, 사도행전(I)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1989년 10월 10일 발간하였다. '좋은 말씀' 시리즈는 '말씀과 함께'에 연재되었던 사도행전의 본문을 1장부터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1976년 한 목회자의 자녀들이 기도회로 출범한 루디아 선교회는 1980년 초등학교에 기증한 10권의 학급문고가 씨앗이 되어 1989년 여덟 개의 영역으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확대 발전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만 철저하게 따라 나온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후 문서사역, 낙도 및 오지 사역, 교사대학,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었고 한국 교회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루디아 선교회의 창립과 발전은 그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어린이 전도를 과감히 시도함으로서 어린이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어린이 공동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사역의 또 다른 측면을 통한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2 절 루디아 선교회 공동체 훈련의 원리

1. 공동체 훈련의 원리

한국교회는 어린이와 젊은이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주일학교에 대한 평가는 이미 19세기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다. 요한 웨슬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를 품위 있는 기독교인으로 길러 내는 요충지로 평가’하였고, ‘가장 탁월한 교육기관이라고 극찬’하였다. 반면 스코틀랜드 렌프류(Renfrew) 장로교회 토마스 번즈(Thomas Burns)는 비판적인 견해를 취했다. 그는 주일학교 교육이 가정의 신앙교육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혹평을 가했다.¹⁴¹⁾ 우리도 역시 토마스 번즈가 지적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 왜 주일학교 교육이 스코틀랜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부모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극단 가운데 중용을 취하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자가 섬겼던 루디아 선교회는 바로 이러한 지적들로부터 사역의 출발점을 삼았다. 즉 지금까지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어린이 신앙 교육을 모두 담당하다시피 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신앙 교육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도 그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그것으로 어린이의 신앙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 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루디아 선교회의 공동체 훈련의 원리는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기적인 공동체 훈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낙도와 오지와 같은 곳에서 캠프 사역을 개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공동체성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적인 성숙과 결단을 갖게 한다. 또한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다운 공동체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공동체 안

141) 토마스 번즈는 “잉글랜드에서는 필요한지 몰라도 스코틀랜드에서는 필요한 기관이고 보지 않으며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일학교 교육은 모든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파괴할 것이며, 교회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창원, 교회: 깨어있는 예수의 공동체 (서울: 진리의 깃발, 2000), 172.

에서 각 개인이 실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깨달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자는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토마스 번즈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신명기 6장에서 자녀 신앙 교육의 목적과 철학을 도출하였다. 어린이 전도와 양육의 대현장인 신명기 6장의 교훈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루디아 선교회의 어린이 공동체 훈련의 목적을 결정했다.

첫째, “가르치라” 명령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루디아 선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 세대 어린이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2절)에 근거하여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규칙적으로(regularly),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어린이의 삶에 적합하도록(relevantly)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루디아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매일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캠프를 통하여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성경읽기를 생활화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가정이라는 장에서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되, 특별히 자녀의 친구 가운데 불신가정의 어린이를 집으로 초청하여 주말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 셋째, 교육의 목표는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함”이다(2절). 어린이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인식연령’(age of accountability) 전까지 어린이의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와 가정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훈련한다. 그리하여 이 훈련을 통하여 어린이가 지속적인 성장과정을 통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자율적이며, 책임을 다하는 가족과 일군과 시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프로그램의 철학

자녀(어린이) 신앙 교육의 성패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부모 세대의 의

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4절)의 말씀처럼 부모가 먼저 성경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

둘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5절)의 말씀처럼 자녀의 모델인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절대 복종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6절)라는 말씀처럼 부모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quiet time)하여 매일의 메시지를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7절)라는 말씀처럼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이다. 그러므로 루디아 선교회의 어린이 공동체 훈련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를 돕는 프로그램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기도회 또는 어머니 교실을 운영함으로 자녀에게 성경읽기를 지도하고,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료와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7절)라는 말씀처럼 신앙 교육의 장(場)은 가정이며, 교육하는 시간은 자녀의 24시간의 생활 속에서 교육해야 한다. 고로 루디아 선교회는 주말 주로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정 성경공부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집을 개방한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자녀의 친구 중에 불신 가정의 어린이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성경공부 리더로 활용했다.

여섯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즉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미래적 삶이 곧 그것이다. 이를 두고 신명기 저자는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정복하게 됨(10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입성함(10절),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소유하게 됨(11절),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며, “배

불리 먹게 하실 때,” 곧 축복과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미래이지만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도 동일하여 자녀 세대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도록 준비케 하기 위하여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중한 과외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

일곱째, 부모 세대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목적은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미래를 자녀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12절),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며 섬겨야 하며(13절), 출세와 번영을 위하여 세상의 철학과 지식, 곧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14절).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16절), 성경의 교훈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17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여덟째, 자녀세대를 신앙 교육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답식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20-21절)라는 말씀처럼 일상적인 삶의 상황에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루디아 선교회의 공동체 훈련의 원리 및 철학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훈련의 원리와 동일함을 밝혀둔다. 이 말씀은 당시 모세의 시대의 교육의 원리일 뿐 아니라 공동체 훈련을 하는 오늘날 훈련 단체들의 성경적 모델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루디아 선교회의 공동체 원리도 이와 같이 가정과 공동체의 훈련을 통한 것임을 그 철학으로 밝혀둔다.

제 3 절 어린이 공동체 훈련을 위한 총체적 사역 전략

1. 그림성경 전도 사역

그림성경 전도 사역은 어린이들이 만화를 재미있게 읽는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성경 만화를 초등학교 학급문고로 기증하는 방법이다. 1980년 처음 성경 만화를 기증 받았던 중대 부속 초등학교 권효순 교사는 어린이들이 책을 서로 먼저 읽으려고 하교 시간에는 미리 자기 책상에 책을 가져다 놓고 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또 권 교사는 성경만화를 반 어린이들에게 읽게 했다. 수업시간 틈날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자신의 생활을 소개해주곤 했다. 학년 초에는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고작 13명에 지나지 않았다. 학년 말 마지막 수업을 할 때쯤 되어서 놀랍게도 전체 63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한 55명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에서도 어린이들이 성경만화를 읽으려고 권 교사 교실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로 판단하고 중앙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전체 학급에 성경만화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루디아 선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기도 캠페인이었다. '전국 6,450개 초등학교 5,640,0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도의 뒷받침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초등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3월 도곡교회(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동)에 성경만화 한 질을 보냈다. 도곡교회 담임 교역자 한부일은 성경만화 10권의 겹장이 다 닳아 헤어졌고 읽으려는 학생들은 줄을 잇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 소식은 성경만화가 어린이 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고, 성경만화를 전국 초등학교 학급에 학급문고로 보급하자는 문서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경상북도와 강원도,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어린이들은 성경만화를 좋아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성경만화의 구입은 주로 후원자들의 헌금으로 구입했으며, 생명의 말씀사의 대표이사 고일선이 성경만화 전도 소식을 듣고, 기증해 주시기도 했다. 해마다

성경만화 전도를 위하여 기증하는 수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성경만화 구입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인쇄했다. 성경만화를 초등학교 학급문고로 기증하는 어린이 전도 사업을 '갈릴리의 부르심'(600만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이라고 정하고, 후원헌금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

1984년에는 성경만화 총 140여 세트를 여러 초등학교와 낙도에 있는 교회에 기증했으며, 1985년에는 91세트를, 1986년에는 127세트의 그림성경을 기증했다. 지금까지 국내 만화작가가 그린 성경만화를 기증해 왔으나, 미국 데이비드 쿡(David C. Cook Ministries)의 그림성경(생명의 말씀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중요한 이유는 흥미 위주의 만화보다 성경 본문과 사실에 충실하게 제작한 그림성경이 더 전도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후, 그림성경 전도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산발적으로 인간관계에 의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보다 전국을 도 단위로 나누어 보내기로 했다. 제일 먼저 강원도 지역 6,000학급에 그림성경을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기금 마련을 위하여 '그림성경 보내기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한 700세트의 그림성경을 1987년 강원도 지역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3개 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증했다.

1988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간 1987년에 그림성경을 보냈던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등 3개 군을 방문하여 그림성경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제2회 자선 음악회를 통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그림성경 1,000 세트를 구입하였다. 생명의 말씀사의 그림성경 보유재고가 부족하여 1989년 8월 22일 강원도와 낙도에 보낼 그림성경 1,000세트를 특별 주문하여 그림성경의 인쇄를 끝마쳤다.

2.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 모임

1980년 8월 중앙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2학년 한 학급에 학급문고로 기증했던 성경만화 8권은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역사했다.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그 도구는 성경만화였다. 성경만화를 읽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 어린이들의 편지가 계기가 되어

징검다리 신약편 6권(한국 성서 유니온)을 통신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너무 오래 전 말투와 현대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했으므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성경을 찾던 중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현대인의 성경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줄곧 어린이들에게 현대인의 성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1981년 8월 22일 신서영 교사(반포초등학교)와 6명의 교사들(천호, 중대 부속 초등학교)이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어린이 전도에 대하여 토의했던 세 가지 원칙이 루디아 선교회 어린이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성경 만화는 예수님의 생애, 철이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읽도록 권장하기로 하는 것이며, 둘째 원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경만화를 중점적으로 전달한다는 원칙으로서 1987년 이후 성경의 본문에 보다 더 충실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이비드 쿡 출판사의 그림성경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철이의 마음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절판됨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 전도지를 출판하기로 하였다. 셋째, 성경 공부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징검다리(성서유니온 발행)를 보급하고, 월 1회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사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놓았다.

1981년 12월 5일 어린이 성경 공부 모임의 이름을 '징검다리'로 정하고, '징검다리' 창립 예배를 반포 침례 교회당에서 드렸다.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 출판부 유재선이 징검다리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었다. 한익수, 한철형, 박미혜 세 분 교사의 지도로 반포어린이 징검다리 모임이 반포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어린이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초창기 어린이 성경 공부는 월례 모임이었으며, 교회당을 모임 장소로 빌려서 사용했다. 이후 '징검다리' 어린이 성경공부 모임이 천호동, 도곡동으로 확장되었으며, 더 많은 성경공부 리더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다. 매주 월요일 11시 박미혜 교사의 자택에서 성경공부 리더 모임과 기도회를 가졌다.

루디아 선교회는 1982년 1월 27일 부산에서 상경한 김미자 교사(당감 초등학교)을 만났다. 그후, 루디아 선교회에서 제공한 현대인의 성경과 징검다리를 교재로 사용하여 부산지역 징검다리 첫 모임을 당감 초등학교 안에서 시작한다는 소식을 보내주셨다. 1982년 8월 17일 부산 당감 초등학교, 당평 초등학교, 괘법 초등학교 기독교사와 어린이 전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어린이 전도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더블

어 매월 한번씩 교회당을 빌려서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징검다리 어린이 성경 공부는 종전과 달리 선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개방하여, 어린이 가정성경 공부 모임을 갖도록 변화를 시도했다.

1983년 징검다리 성경 공부는 지도자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가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린이 성경공부 '징검다리' 지도자를 위한 제1회 수련회를 열기로 하고, 윤종하 총무(한국 성서 유니온)가 '어린이 전도의 성경적인 근거와 실제'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3. 어린이 캠프 사역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 모임 '징검다리'를 인도하던 리더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 가정의 자녀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 가정의 자녀의 신앙 지도는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불신자 가정의 자녀인 경우, 성경공부를 통하여 성경지식은 습취할 수 있으나, 그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생활의 모습을 접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과 생활을 접목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982년 2월 첫 월요기도회에 한국 기독교 수양관 총무 김춘택을 초대하여 '새 생명 성경 캠프'의 사역 소개를 듣고, 이 사업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어린이 캠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동안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어린이를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캠프에서 공동체 생활 훈련을 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다. 어린이 캠프 운영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캠프를 열었다. 198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호주 성서 유니온 국가 총무 데이비드 클레이던(David Claydon: 현재 호주 성공회의 Church Missionary Society의 책임자)의 도움으로 짧은 일정으로 캠프 리더 훈련을 받았다. 8월 9일-13일까지 성서 유니온과 협력하여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 소재 상판 분교에서 서울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전도 캠프(제1회 징검다리 캠프 : 현재 한국 성서

유니온에서 이 이름으로 어린이 캠프를 열고 있다)를 열었다.

1984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고양군 고양리 소재 유스호스텔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서 유니온과 협력하여 제2회 어린이 전도 캠프를 갖다. '어린이 전도와 캠프'에 대하여 외국에서 서적을 입수하여 연구하는 한편 두 번째 캠프를 준비했다. 특별히 루디아 어린이 캠프의 핵심은 성경 교육임을 천명했다. 공식적인 성경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로써 적용되기 때문에 캠퍼들은 꼭 공식적인 성경공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다는 캠프의 원리를 분명하게 밝혔다. 사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므로 캠프는 규칙적으로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개인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머리 속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지식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힌 습관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캠퍼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캠퍼들이 되도록 읽기 쉬운 성경을 사용하라는 부탁이다. 한글 개역 성경은 어린이들에게는 어렵고 어체가 맞지 않는다. 신약 성경일 경우,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때 '현대인의 성경'이 완간되지 않았음)을 사용하도록 했다.

어린이들의 경우 별도의 성경 공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경읽기 시간을 연장해서 주어진 본문을 읽고 나서 캠퍼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게 한 후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짚막하게(1-2분 정도) 간증하게 하는 것이 주어진 본문을 바로 이해했고 제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린이들은 내가 읽고 적용한 것과 다른 어린이가 한 것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게 된다. 나눔의 시간(group sharing)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캠프 프로그램 가운데 성경읽기가 가장 중요한 캠프의 목적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루디아 어린이 캠프 리더 핸드북을 제작했다.

루디아 선교회 단독으로 어린이 캠프를 주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85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했다.

이것을 위하여 캠프 리더 훈련이 있었는데 6월부터 캠프가 시작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그룹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sharing) 훈련을 받았다.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캠프에 참가할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God's provision)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다. 캠프 모집과 준비를 위해 32명의 어린이(camper)가 참석했다. 대부분 루디아 선교회 회원의 자녀이거나 회원의 소개를 받은 온 어린이들이었다. 프로그램은 피크닉 런치(picnic lunch)라고 해서 점심을 각자 싸와서 서로 나눠 먹게 했으며 신문 만들기를 했는데 단체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커 온 어린이들이라 반별로 모여앉아 '신문 만들기'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서로 자기 반의 자랑거리를 알아내기 위하여 협력하는 팀웍(team work)의 시간이었다. 성경공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각자가 갖는 '성경 읽기'와 저녁에 빙 둘러앉아서 갖게 되는 그룹 '성경공부'였다.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자기가 느끼거나 깨달은 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리더들도 말씀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주입식이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 성령께서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고쳐 가신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으로 체험하였다. 저녁 시간에는 찬양의 모임, 불꽃놀이, 선교사의 생활을 슬라이드로 보면서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촛극과 모닥불을 피우고 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선교사의 생활은 주로 해외 선교회(OMF)에서 빌려 온 것을 사용했다. 오전 특별활동으로 공작과 미술의 시간을 가졌는데 공작 활동의 소재를 더 많이 찾아내고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이 프로그램의 보강을 위하여 미국의 전문 단체와 서신 교환을 했다.

1986년 어린이 캠프는 1월에 남한강 종합 수련원(경기도 양평)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었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일종의 가상의 가족 공동체이기는 했으나 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 연대감을 더욱 승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한 가지 행사를 마련했다.

1988년 겨울 어린이 캠프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경기도 고양 유스

호스텔에서 39명의 어린이와 15명의 교사들이 88년 겨울 루디아 어린이 캠프를 가졌다. 서울과 강원도 두 지역의 어린이들이 캠프에서 사귀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체험하도록 했다. 특별히 회원들이 강원도 어린이들의 참가경비를 현금할 수 있도록 강원도 어린이 초대를 위한 스칼라십 플랜(scholarship plan)을 미리 알려주었다. 1988년 여름 어린이 캠프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간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에서 초등학교 3-6학년 남녀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했다.

1989년 겨울 어린이 캠프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루디아 어린이 캠프가 4박 5일 동안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어린이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89년 여름 어린이 캠프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북동리 소재 북동 초등학교에서 강릉 지역과 서울 지역 어린이 49명이 모여 루디아 여름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

4. 낙도 전도

1982년 첫 번째 낙도 전도(해도)가 8월 5일부터 해도 분교에서 있었는데 2박 3일간 어린이 전도 집회를 열었다. 1983년 낙도 전도(해도와 진도)는 8월 16일-20일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해도와 진도군의 인지리에서 거행되었다. 1984년 낙도 전도는 둔병도와 해도에서 있었는데 198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경환 전도사, 김덕천 전도사가 해도를 방문하여 전도 사역을 전개하였다. 1985년 낙도전도는 덕우도에서, 1986년 낙도 전도는 우도와 다량도에서 전개되었다. 1987년 낙도 전도는 1987년 1월 20일-23일까지 박 병은 목사와 이 경환 전도사가 해도에서 거행하였고 11월 11일-15일에는 전남 완도군 다량도에서 거행했다. 1989년 낙도 전도는 8월 8일-11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에서 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루디아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

5. 성경읽기 사역

그림성경 사역은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으로, 어린이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은 어린이 캠프와 낙도 전도로, 어린이 캠프와 낙도 전도는 성경읽기 사역으로 발전

되었다. 첫 징검다리 성경공부 모임은 1981년 12월 5일 반포 침례 교회당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루디아 소식(1982년 12월 4일자)에 이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교회란 '첫째는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롬 16:15)을 의미하고, 둘째는 각 교장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고전 1:2)을 뜻하며, 그리고 셋째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골 1:24)을 의미한다'고 강의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가정이 초대 교회였으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사는 그곳이 곧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영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모이는 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알고 가정교회를 세워 나간다면 우리들의 집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경적 교훈이 가르쳐지며 실천되는 곳이며,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는 곳이고,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간의 교제가 나누어지고 체험되는 곳이다. 그리고 넷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드리는 곳이며,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곧 믿음의 유산이 전달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요지로 자녀의 신앙 교육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자의 가정이 곧 교회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면 어린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캠프 사역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이었는데 캠프는 24시간 하루 전체가 신앙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므로 성령께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캠프에서 우선순위는 캠퍼들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인 여러 면보다 '영적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캠프의 핵심은 성경 교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캠퍼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먼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언제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식적인 성경공부 시간만 중요한가, 캠프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적용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캠퍼들은 꼭 공식적인 성경공부 시간이 아니라도 전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루디아 선교회 어린이 캠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성경읽기, 성경공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6. 주일학교 교사 대학

1989년 루디아 주일학교 교사대학 첫 강좌가 1월 23일-25일까지 인천지역의 일곱 교회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일학교의 역할과 목적,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 교사의 영적 생활, 예배의 진행과 프로그램, 공과준비법, 그리고 큐티 실습 등 모두 10시간의 강의. 참석했던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주간 성경공부를 통해서 큐티 훈련과 공과준비를 위한 성경공부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두 번째 주일학교 교사대학은 1989년 6월 1, 2일, 9, 11일 수원 양무리 교회(박성수 강도사 시무)에서 총무 김덕천 목사의 지도로 개최되었다. 양무리 교회와 사명의 교회 두 주일학교 교사 18명이 참석하여 예배와 분반공부 지도요령, 공과 준비법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워십을 가졌다.

7. 출판 사역

가정예배 지침서는 해롤드 쉐라(Harold Sala)가 지은 책이 저자의 허락을 받고 인쇄를 끝마쳤다. 참말이예요!는 세계 가정 성경 연맹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12월에 출판되었다. 또한 어린이 전도지가 제작되었는데 똑!똑!똑!, 나의 마음, 약속들....약속들, 조그만 다섯 손가락 등 어린이 전도지 4종이 미국 미시간주 세계 가정 성경 연맹의 필름 제공과 제작비 지원으로 3쇄 120,000매를 인쇄, 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 성경공부 교재 사랑의 이야기는 세계 가정 성경 연맹의 재정 지원으로 어린이 성경공부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과마다 성경구절과 설명이 있고 어린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짧은 요절을 제공하고 또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문, 혼자 풀어 볼 수 있는 10개의 문제로 구성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

제 6 장

루디아 선교회 공동체 훈련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어린이 공동체 훈련에 대한 개념과 그 실제들을 다루었다.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본 연구자가 섬겼던 성서 유니온, 그리고 한국 안에서 시행해 왔던 루디아 선교회의 역사와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공동체 훈련의 필요성과 그 실제들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21세기에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편만하게 되어 이기적인 삶의 태도와 회의주의가 점차 팽배하여 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는 단순히 세상의 사회와 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도 그러한 조류들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 개념을 약화시킬 것이며 교회 교육의 패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미 번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교회 교육의 패턴으로는 기독교 교육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지 의문이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과 새로운 공동체 훈련을 통한 어린이 훈련과 전도는 매우 필수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주지한 바와 같다. 신약적인 개념에서 가정은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교회 교육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러한 가정 교육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과 그와 더불어 공동체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루디아 선교회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을 해왔다. 그림성경 전도사역,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 모임, 어린이 캠프 사역, 낙도 전도, 성경읽기 사역, 주일학교 교사 대학, 출판 사역 등 어린이 전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큰 원리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

요성을 느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본 장에서 루디아 선교회의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미래적인 대안과 함께 그 결론으로 제시하려 한다.

첫째, 그림 성경 전도 사역의 확장이다. 오늘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시대이다. 다채널과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이 안방에서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아직도 수십년 전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시각화'를 통하여 어린이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별히 단순한 지면식의 그림 성경이 아니라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어린이용 성경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교회와 각급 학교에서 상영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보급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각 가정에 적어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거의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용 성경을 제작하고 그것을 배포하는 일은 루디아 선교회의 또 다른 사역의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어린이 가정 성경공부 모임의 다각화이다. 이러한 모임은 교회에서 행하는 공과공부 혹은 분반공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분반공부와 공과공부가 현재까지는 일반 학교의 주입식 교육처럼 지식전달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방법론에서는 각 가정에 아이들이 모여 삶을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개념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일단 집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개념을 체득할 수 있고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신앙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성경공부 모임의 다각화는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불신자 어린이의 경우 친한 친구의 집으로 불러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성경공부를 함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훈련된 교사의 양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주일학교 교사대학의 활성화이다. 앞서 어린이 성경공부 모임을 위해서는 훈련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는데 그런 면에서 주일학교 교사대학의 활성화는 어린이 공동체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는 교사를 닮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훈련된 교사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은 교회와 선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영성, 학생 지도법,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철학, 성경적 양육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교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각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개별적으로 열고 있지만 적실성 있는 교사대학의 개최가 매우 아쉬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 캠프 사역의 내실화이다. 어린이 캠프 사역은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루디아 선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어린이 캠프는 지금까지 논증해왔던 공동체 훈련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오늘날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공동체의 개념을 확립시켜 주고 그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캠프 사역이다. 이 캠프 사역은 어린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성경적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정하고 완성해가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앞으로 21세기는 글로벌(Global)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린이 캠프 사역을 국내적으로 개최함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인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기타 다른 지역의 성서 유니온 단체와 연계하여 각 나라를 순회하며 캠프를 개최하고 그 캠프를 통하여 공동체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주말 캠프를 활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학교와 가정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하면 어린이 캠프의 사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불신자를 초청하여 캠프를 떠나 1박 2일 동안 공동체 훈련과 신앙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현재의 전도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낙도전도 사역이다. 루디아 선교회의 사역의 방향 중에 중요한 또 다른 면이 바로 이 낙도 전도 사역이다. 낙도 사역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낙도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개최하는 사역이다. 이 낙도 사역은 어린이 캠프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낙도를 방문하여 다른 문화의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친교를 갖게 되고 결국 복음을 접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낙도전도이다. 루디아 선교회에서는 여러차례 낙도 전도 사역을 해왔다. 앞으로도 좀더 개발되고 연구되어진다면 낙도전도를 통하여 어린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째, 성경읽기 사역이다. 성경읽기 사역은 모든 사역의 기초적인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다른 방면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읽기 사역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 어린이 전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같은 성경읽기 사역은 가정에서 행하는 성경공부의 사역과 병행할 수 있다. 훈련된 교사가 각 가정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성경공부와 성경읽기 사역을 감당한다면 가정과 공동체를 통한 신앙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성경읽기 사역은 또한 어린이 캠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캠프 기간 중에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읽고 연구하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역이다. 성서유니온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어린이 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출판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 방법론과 틀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출판사역은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어린이 공동체 신앙교육을 하는데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사역이다. 어린이 매일성경을 발간하고,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 북을 만들고 성경캠프에 활용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공동체 훈련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출판 사역은 오늘날 어린이들의 상황에 맞추어 좀더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자는 가정교육과 공동체 훈련을 통한 어린이 신앙성장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신앙교육은 가정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게 된다면 교회와 사회가 건강하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육이 올바로 서지 못할 때, 교회 역시 병리성을 안고 있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오늘날 사회적인 병폐들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의 이상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숙케 되고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어린이 캠프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사역이다. 성서유니온과 루디아 선교회를 통하여 제시된 이러한 사역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어린이 신앙교육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자라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역자로 양육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김폴린.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 이규용. 기독교교육약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9.
- 문수재 외. 새로 보는 가정 경영. 서울: 학지사, 1996.
- _____.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수학사, 1997.
- 은준관. 기독교교육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1.
- 서창원. 교회: 깨어있는 예수의 공동체. 서울: 진리의 깃발, 2000.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 임정빈 외. 가정 관리학. 서울: 학지사, 1994.
- 장영숙 외. 가정생활의 이해. 서울: 교문사, 2000.
- 장원철.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1999.
- 전웅섭. "교회 교육의 위기. 그 극복 방안을 말한다." 목회와 신학, 1990년 3월호.
- 정웅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조정문, 장상희. 가족사회학. 서울:아카넷, 2001.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한국 교단의 기독교 교육사. 기독교교육 논총 5.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한춘기 편. 한국 교회와 교육: 기독교교육 심포지엄 1. 서울: 총신 대학 출판부, 1993.

2. 번역서적

- Balswick, Jack O. &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The Famil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Banks, Robert.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1.
- Callahan, Kennon L. 성숙한 교회의 12가지 열쇠 (Twelve Keys to an Effective Church). 권오서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DeVries, Mark. 청소년 사역, 이젠 가정이다 (Family-Based Youth Ministry). 오화선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 Friedman, Matt. 이렇게 가르치셨다 (The Master Plan of Teaching). 서울: 파이디온 출판사 1995.
- Henrichsen, Walter.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How to Disciple Your Children).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Nelson, Marlin L. 오늘의 아시아 선교 (The How and Why of Third World Missions: An Asian Case Study). 유두혁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왜관: 분도 출판사, 1978.
- Prince, John. 어린이와 천국 (Whose Is the Kingdom?). 김진홍 역. 서울: 한국 성서 유니온선교회, 1986.
- Richards, Lawrence O. 교육신학과 실제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1.
- . 어린이 사역 (Children's Ministry: Nurturing Faith Within the Family of God). 김원주 역. 서울: 파이디온 출판사, 1995.
- Sell, Charles M. 가정사역 (Family Ministry). 양은순, 송헌복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Soderholm, Majorie E. 구원 이후 어린이 양육은 이렇게 하라 (Salvation, Then What?). 서울: 파이디온 출판사, 1990.
- . 학생을 이해하려면 제2권 (Understanding the Pupil, II).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Stott, John R. W. 에베소서 강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God's New Society). 박상훈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6.

Zuck, Roy B. 성령과 교육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권성수 역. 서울: 영음사, 1976.

3. 외국서적

Bell, David & Rachel Heathfield. Mission Possible: Ideas and Resources for Children's Evangelism. Warwick: CPAS, 2000.

Bridger, Francis. Children Finding Faith: Exploring a Child's Response to God. Bletchley: Scripture Union, 2000.

Buckland, Ron. Children and God. London: Scripture Union, 1988.

Hattam, John. Families Finding Faith: Reaching Today's Families with the Gospel. Warwick: CPAS, 2000.

Inchley, John. All about Children. London: Coverdale House Publishers, 1976.

———. Realities of Childhood. London: Scripture Union, 1986.

Leonard, Joe. Family Ministry: A Practical Guide for a Teaching Church. London: Scripture Union, 1988.

Prest, Eddie. Evangelising Children. Cape Town: The Scripture of South Africa, 1981(Unpublished).

Richards, Lawrence O. A Theology of Children's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1983.

Slater, Tom. The New Camping Book: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Camping. Homebush West: ANZEA Publishers, 1990.

Strange, W. A. Children in the Early Church: Children in the Ancient World, the New Testament and the Early Church.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6.

Whitehouse, Carl. Families on the Way?. London: Scripture Union, 1989.

Wood, Diana. ed. The Church and Childhood. Studies in church History Volume 31.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4.

“Theology of Childhood”(2nd Revision of 1999 Draft Report). Scripture Union, 1999. (Unpublished).

Vita of
Duck Chun Kim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of Sansung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Executive Director of Pan-Asia Books & Media Ministries, Seoul,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August 27, 1946
Marital Status : Married to Jesoon Kwon
with two Sons, Jinchul and Hyunchul
Home Address : #103-101 1st Hagye-Chunggu Apt., 251 Hagye-dong,
Nowon-ku, Seoul,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Hapshin)
Ordained : Oct. 13, 1987

Education

B.A. : Soongsil University, Seoul, 1968
M.div. :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1984
D.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2

Ministerial Experience

3/2001 to present : Associate Pastor of Sansung Presbyterian Church
10/2000 to present : Pan-Asia Books & Media Ministries, Executive Director
5/1991 to 6/2000 : Korea Christian Book Service, Executive Director
1/1991 to 12/1994 : Gangbyun Presbyterian Church, Educational Pastor
3/1980 to 10/1990 : Lydia Mission Society, General Secretary
5/1986 to 12/1988 : Korea Scripture Union, General Secretary

1/1984 to 12/1988 : Songwol Presbyterian Church, Educational Pastor